



청소년의 언어 실태 조사

들어 가면서

-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이 사용하는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은어 대한 문제점은 갈 수록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과정에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 분석과 국민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하게 되었다.
- 본 문서는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실제 언어 습관에 대해 분석하고 여론 조사를 통해 각 계층별 국민의 인식을 파악 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1.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 1.1 분석방법
 - 1.2 WEB 사이트 분석
 - 1.3 SNS 데이터 분석

2. 여론 조사
 - 2.1 여론 조사 기본정보
 - 2.2 주요 조사 결과
 - 2.3 주요 결과 요약
 - 2.4 세부 조사 결과

3. 종합 분석결과(여론조사 및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4. 전문가 의견
 - 박찬규 -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사무총장
 - 한혜원 - 밝은청소년 부장
 - 정철상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1.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1.1 분석방법

1.1 분석방법

- 청소년의 언어 사용 습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WEB사이트(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 온라인 사이트 선정은 코리안클릭, 랭키닷컴 등 **온라인 랭킹 발표 사이트에서 선정된 내용을 기초로 선정**해 신뢰도를 향상 시켰다.

- 분석 기간 : 2014.01.01 ~ 2015.04.30
- 분석데이터량 : 총 819,997 건
- 채널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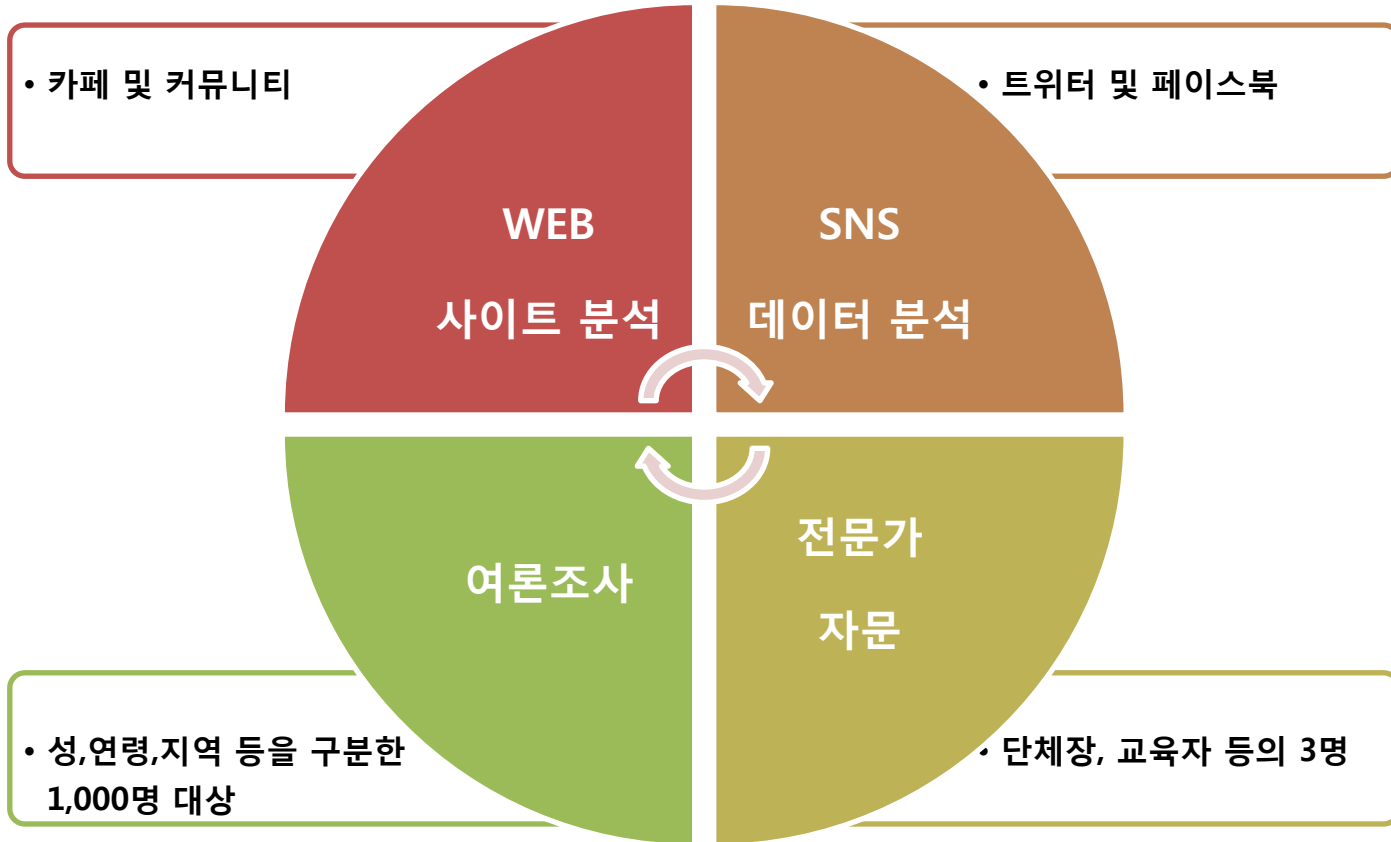
SNS



❖ 온라인상(WEB 및 SNS)에 작성된 청소년들의 글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외부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성 및 정확도 향상을 도모 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 중 내용 분석에 무리가 따르는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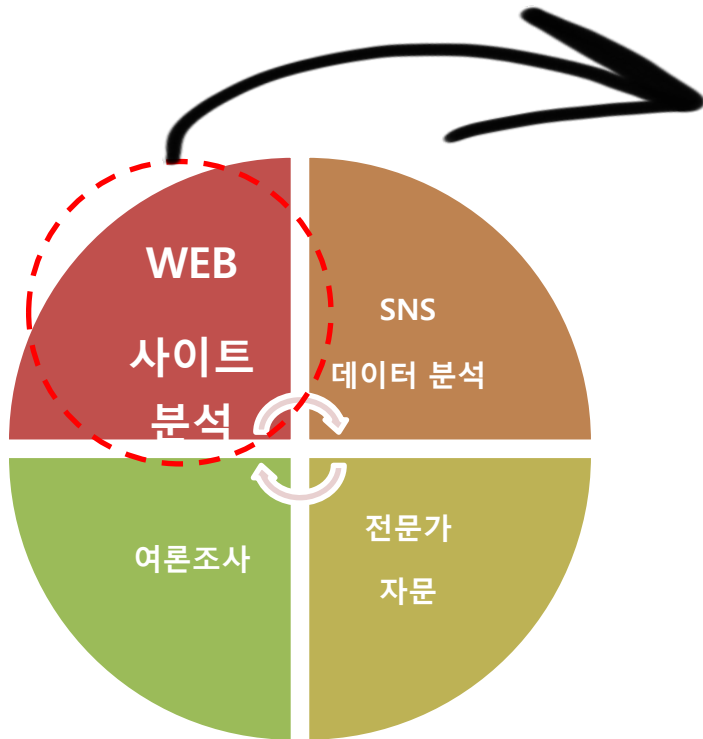
1.1 분석방법

- 총 4단계로 분석이 진행 되었으며, 각각 유형 및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분석을 진행함



1.1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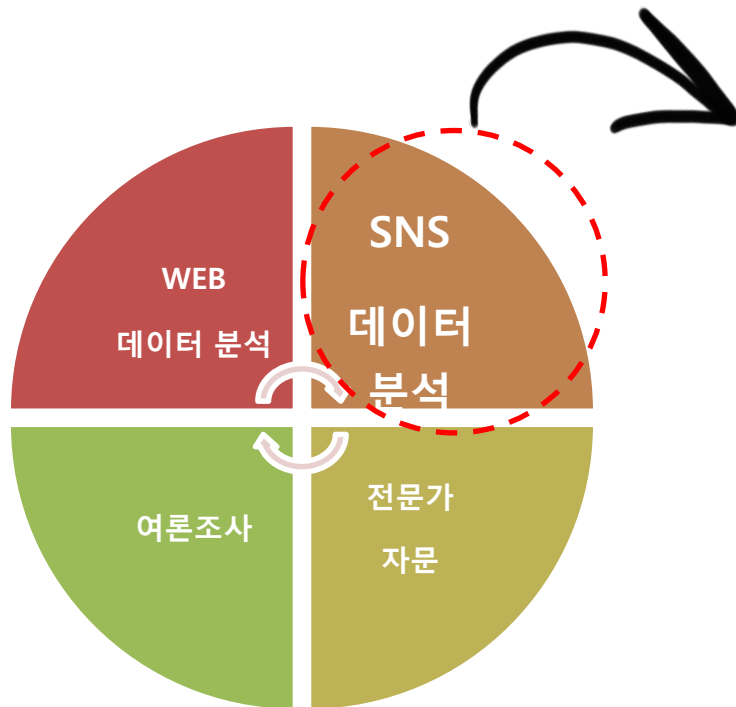
• 1단계 - WEB 사이트 분석



- “**청소년**” 이라는 특정대상의 온라인 상에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하고자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WEB사이트**를 중심으로 분석 실시
- 온라인 사이트 선정은 랭키닷컴, 코리안 클릭 등 **공신력이 있는 통계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군집 채널 선정하고 그 중 세부 **군집 메뉴를 타겟팅**하여 데이터 수집
- 단, 각 채널별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환경이 상이하여 수집량의 편차 발생 => 이는 **정량 분석의 한계**를 가지므로 본 분석에서는 정량 분석 제외

1.1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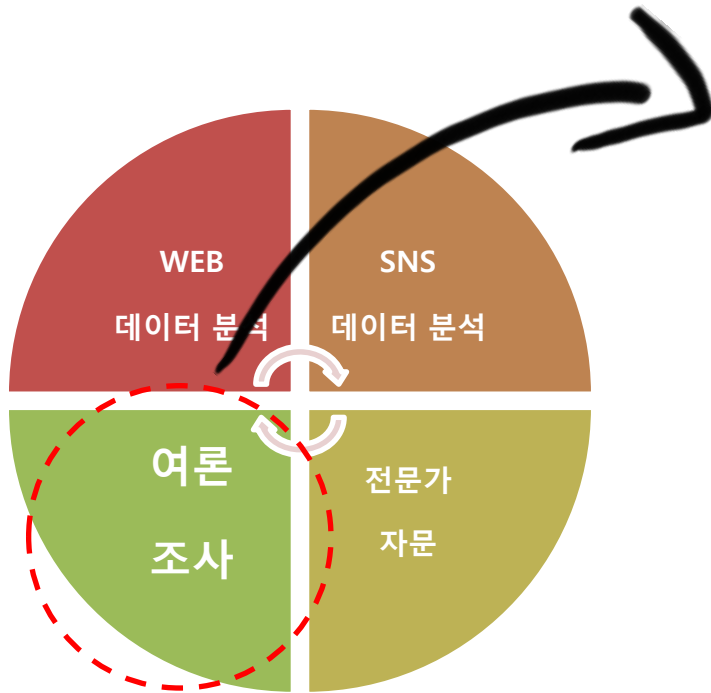
- **2단계** - 1단계 온라인 WEB사이트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 5가지를 선정, 청소년 사용단어 5가지에 대한 SNS 분석을 실시함



- SNS의 경우 연령을 구분 할 수 없는 관계로 특정 대상에 대한 분석을 불가능함
- 따라서, **WEB사이트 분석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의 사용언어를 SNS를 통해 2단계 분석실시
-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용언어가 가지는 의미, 파급력 현황을 보고자 함

1.1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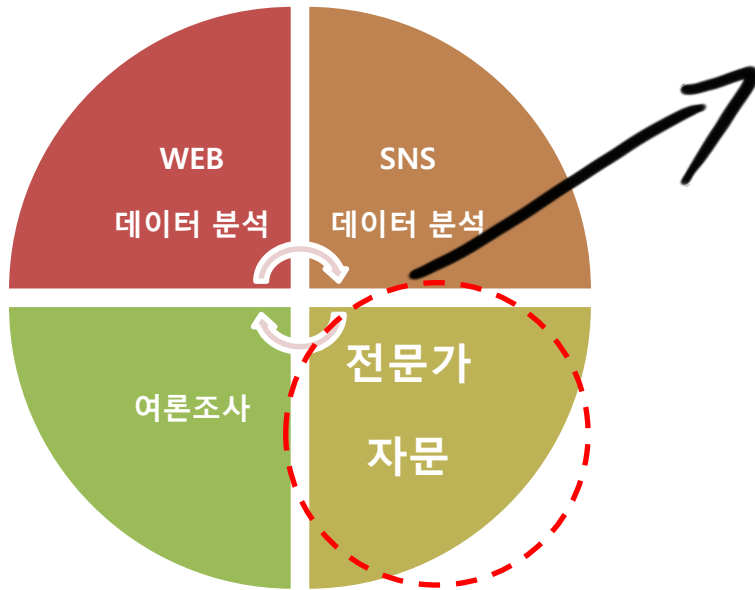
- **3단계** - 1단계, 2단계에서 나온 청소년 온라인 언어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청소년의 언어사용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 성, 지역, 연령대, 직업 등의 계층을 구분, 전문 여론조사 기관(미디어리서치)을 통해 진행(1,000명)
- 각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구분을 통해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로 구성

1.1 분석방법

- 4단계 -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해 자문 진행
- 각 전문가들은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WEB 사이트 분석+SNS데이터 분석) 및 여론조사 결과를 본 후 자문 제공
 - 박찬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사무총장
 - 한혜원 밝은청소년 부장
 - 정철상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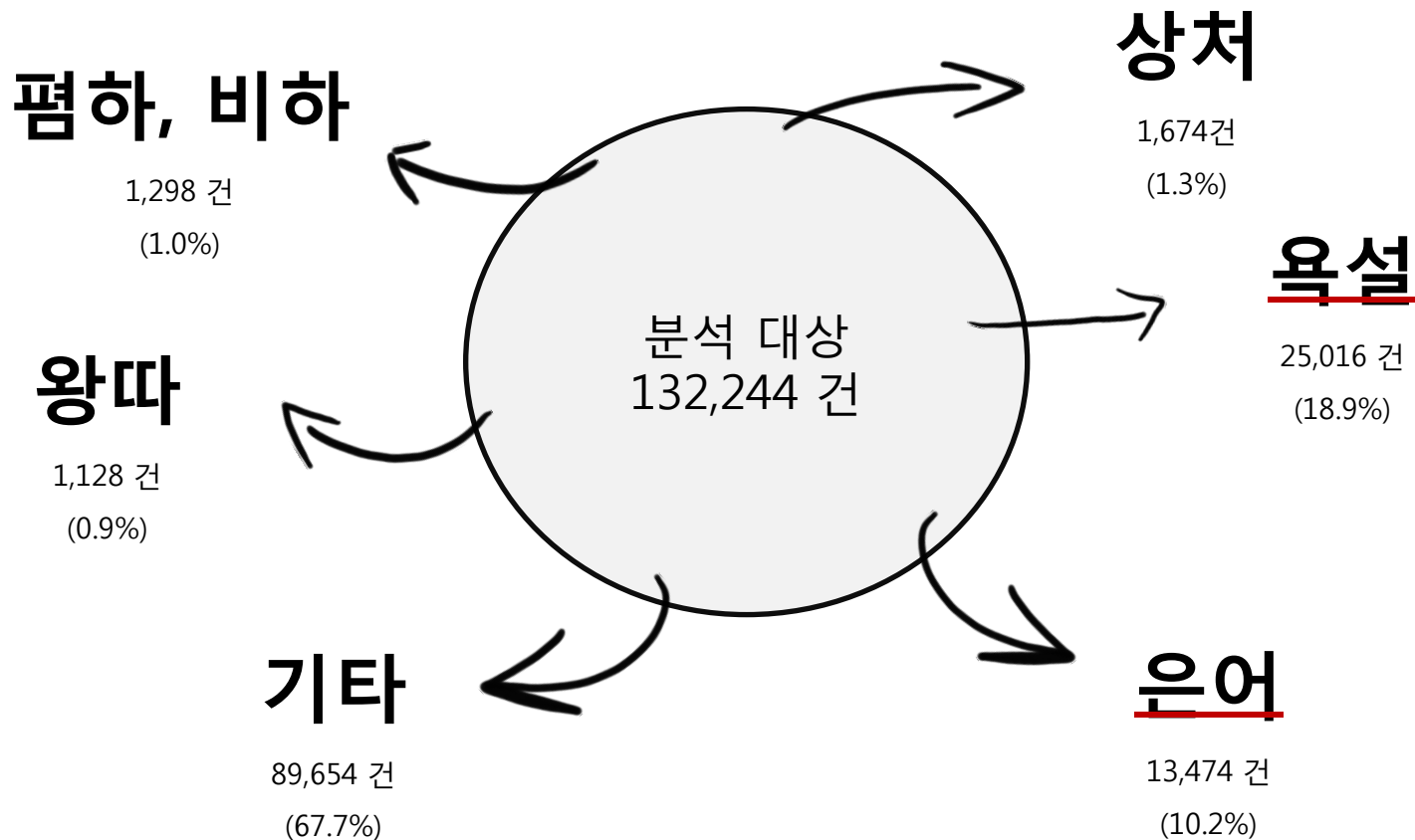
1.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1.2 WEB사이트 분석

1.2.1 WEB 사이트분석 - 내용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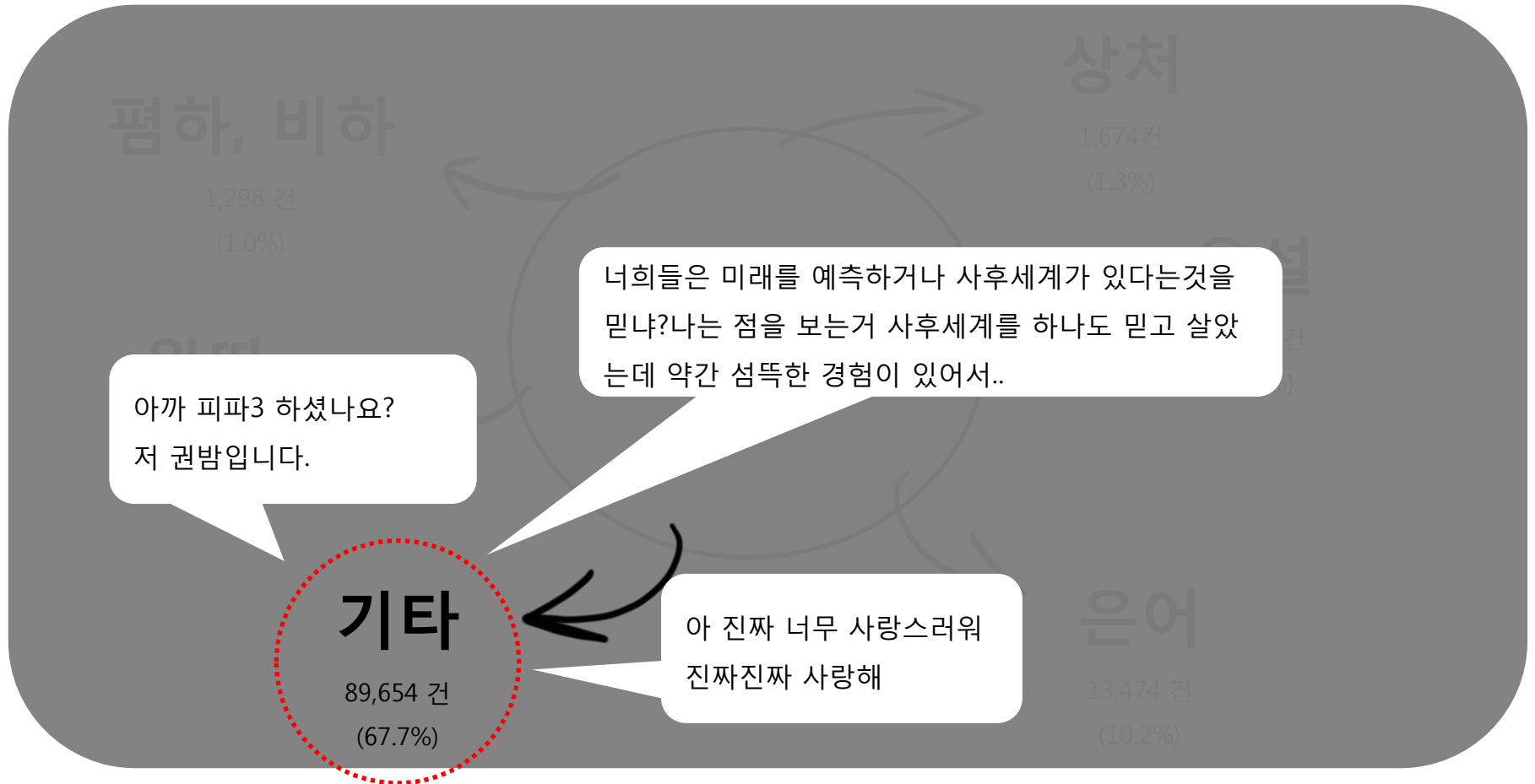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WEB사이트(네이트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등의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을 기준으로 수집 한 데이터는 총 132,244건임

★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의 **32.3%**가 욕설이나 은어, 상처, 폄하, 왕따의 글인 것으로 확인됨



1.2.2 WEB 사이트분석 - 내용분류 기타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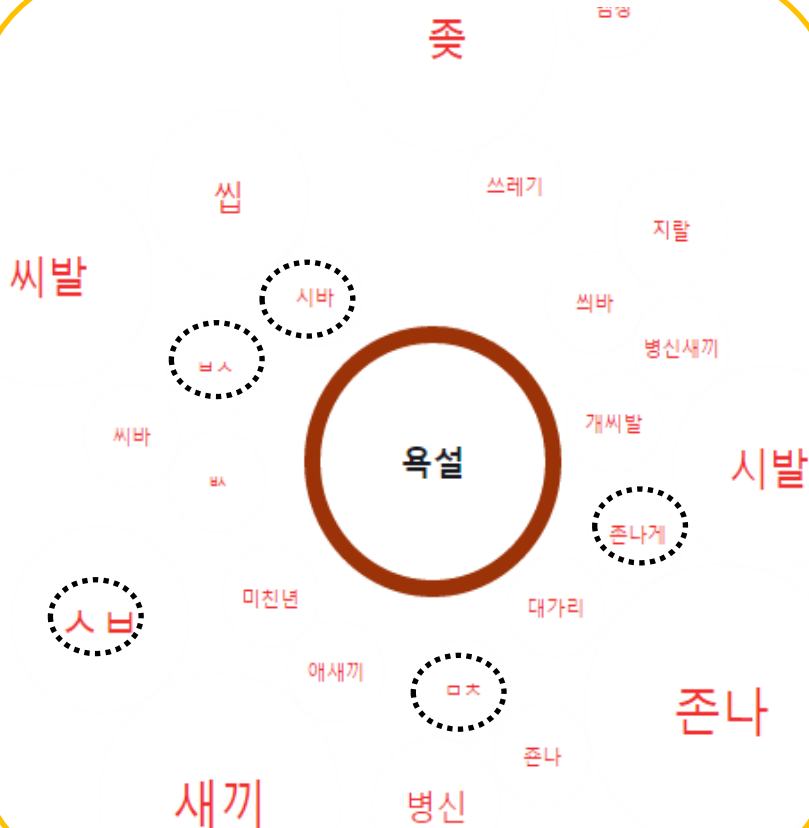
- 기타 내용의 경우 67.7%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일상적인 내용들로써 특정 주제에 국한되지 않았음
- 주로 대화 형식의 짧은 단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게임, 이성관계, 경험담 등 일상의 이야기를 함
- 단, 본 분석의 정확도와 일상 용어와 관련된 분석이 불필요한 관계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1.2.3 WEB 사이트분석 -“욕설” (18.9%)

- 청소년은 주로 “씨발”, “병신”, “존나” 라는 욕설을 주로 사용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다만, 욕설을 다양하게 변형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연관어]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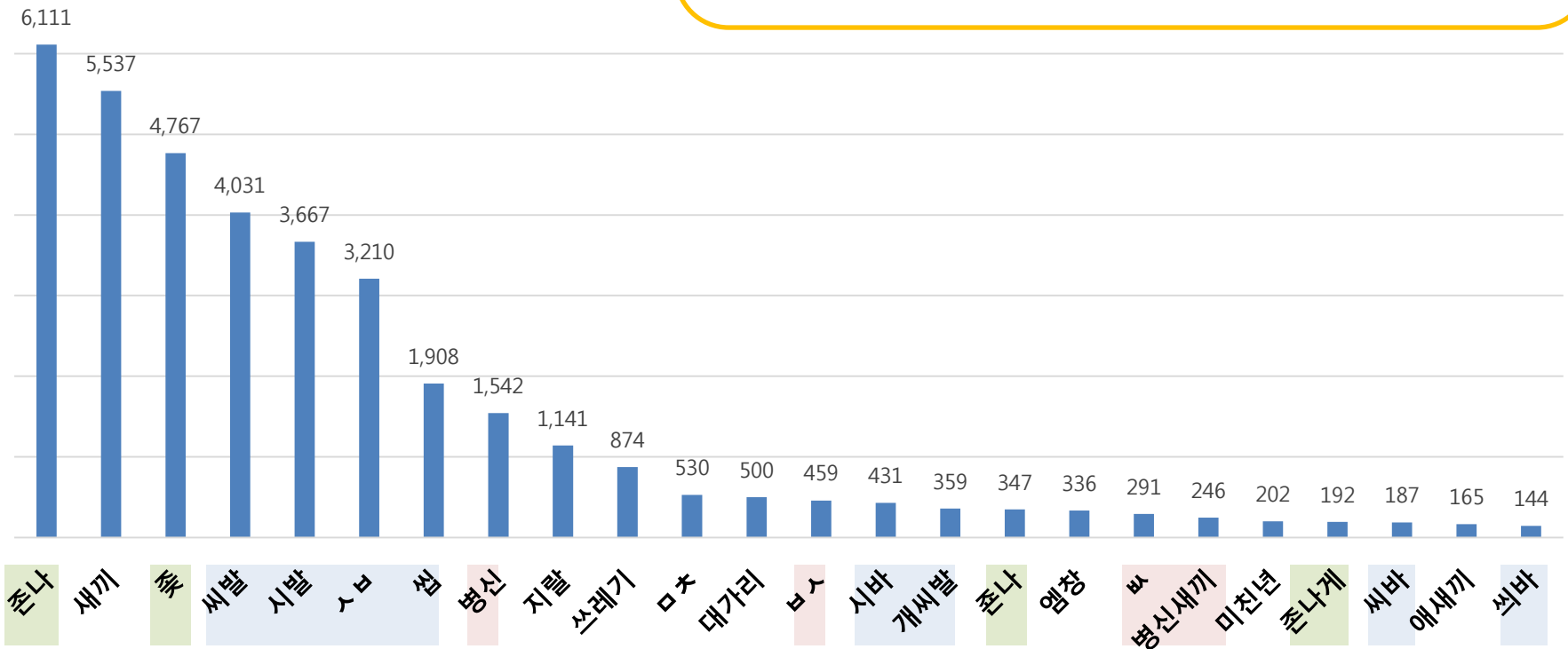
- WEB사이트에서 청소년이 쓰는 글의 18.9%가 욕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이었음
- 다만, 욕설을 사용 하는 과정에 초성만을 사용하거나 맞춤법을 틀리게 사용 하는 등 단어를 변형하여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변형하여 사용하는 원인은 정확히 할 순 없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감시나 관리 등을 피하기 위해 단어를 변형하여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2.3 WEB 사이트분석 - "욕설" (18.9%)

[청소년의 주요 사용 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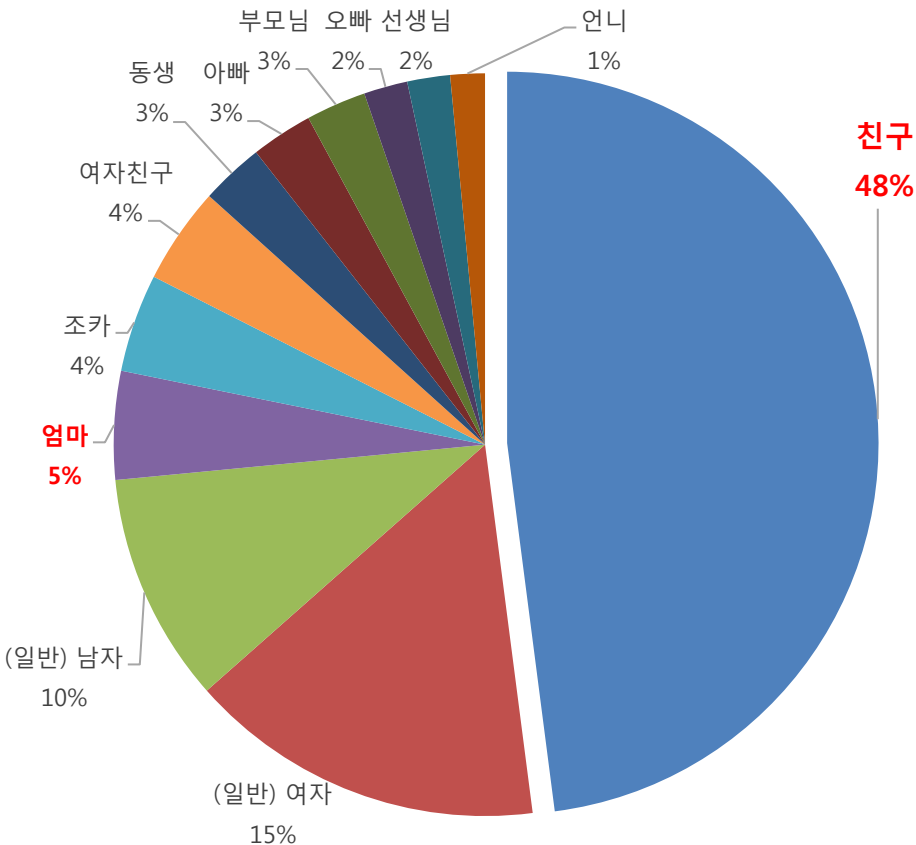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아래 그래프에서 색깔별로 구분 한 욕설은 같은 유형의 욕설을 표시한 것으로 같은 욕설을 다양하게 변형 시켜 욕설을 사용 하고 있었다.
- 그 중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욕설은 "존나", " 좆" 과 같은 욕설을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2.3 WEB 사이트분석 -“욕설” (18.9%)

[청소년의 욕설 사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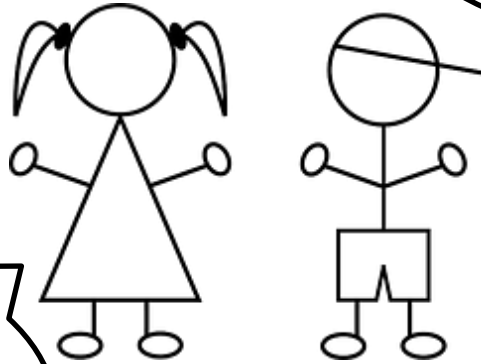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청소년들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욕설을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그 다음으로는 불특정 일반여성에 대한 욕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불특정 일반남성에 대한 욕설이 25%로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이는 친구와 같이 주변에 대한 욕설을 함께 하면서도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특정 이슈나 사건, 이야기에 관련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엄마”, “아빠”, “부모님”, “동생”, “언니” 등 가족과 관련해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엄마”와 관련해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WEB 사이트분석 - "욕설" (18.9%)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여자랑 말싸움하고왔는데
존나 좆같다



왜 담배피냐?.. / 몸에 안좋은거 알텐데 피는 이유를 모르겠다 남자도 뭐 마찬가지로 안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음 술집앞에 보면 진짜 여자 대부분 다 담배피러 나옴 ㅋㅋ **人 ㅂ**

나새학기첫날에전학가는데 / 선생님이 첫날에 교무실로와서 선생님이랑같이 교실 들어가서 인사하고들어가라고하셨는데 **人 ㅂ** 첫날에 뭐라고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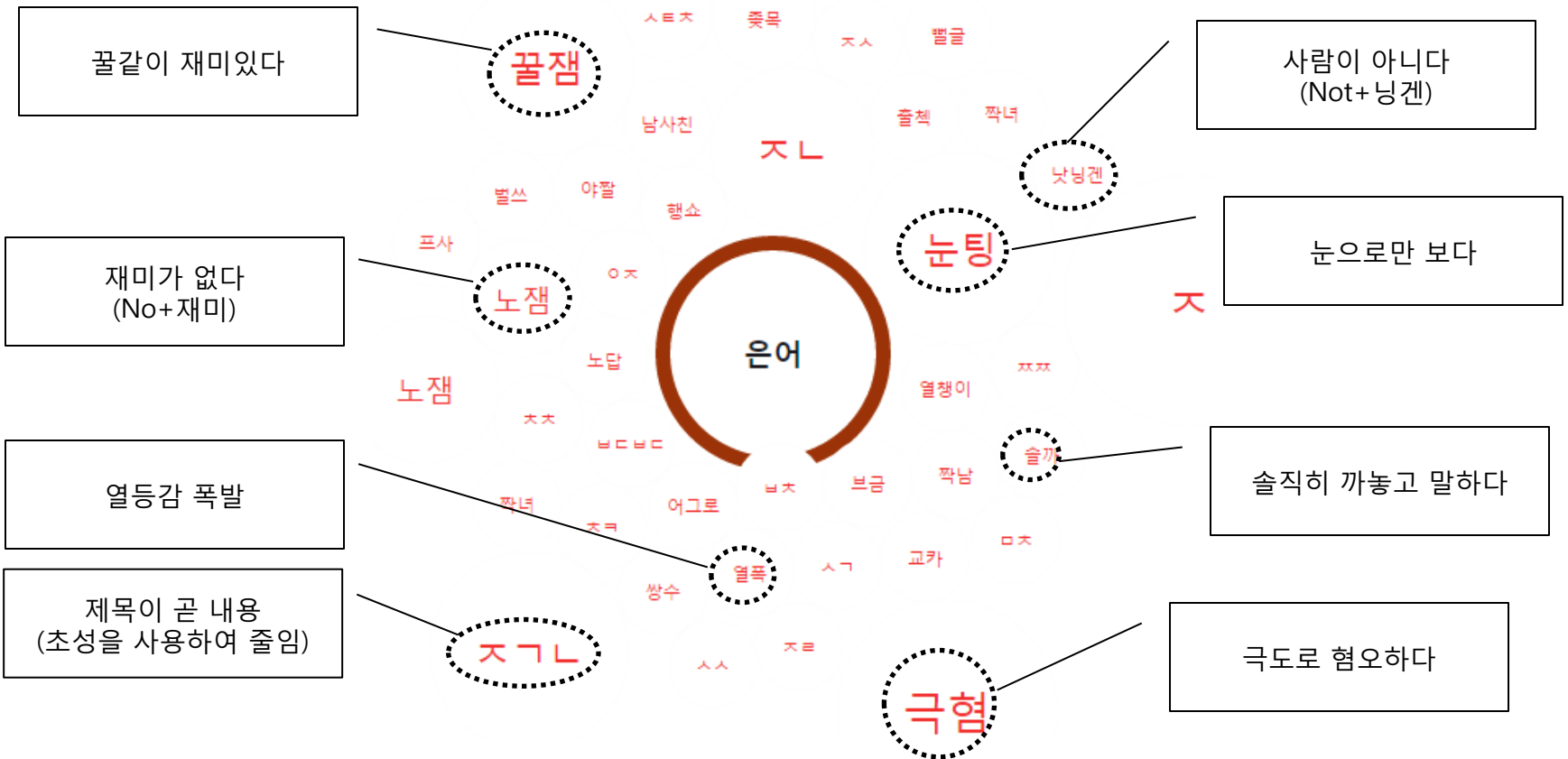
나 이게정상이냐??? / 하...
시발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을 많이 닮아서 뚱뚱 거리고 하는데 엄마는 나보다 훨씬 심함집에있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뚱뚱 거리는거 듣기만해도 화 나거든

글고여동생치마짚이거나 **좆같은친구**
년들 이랑놀면다죽여버림진짜로 / **씨발**
진짜다죽여버린다

1.2.4 WEB 사이트분석 - "은어" (10.2%)

• 주요 은어 뜻

[연관어]



1.2.4 WEB 사이트분석 -“은어” (10.2%)

❖ 은어란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

[연관어]

[주요 내용]

노잼

낫닝겐

솔까

열폭

극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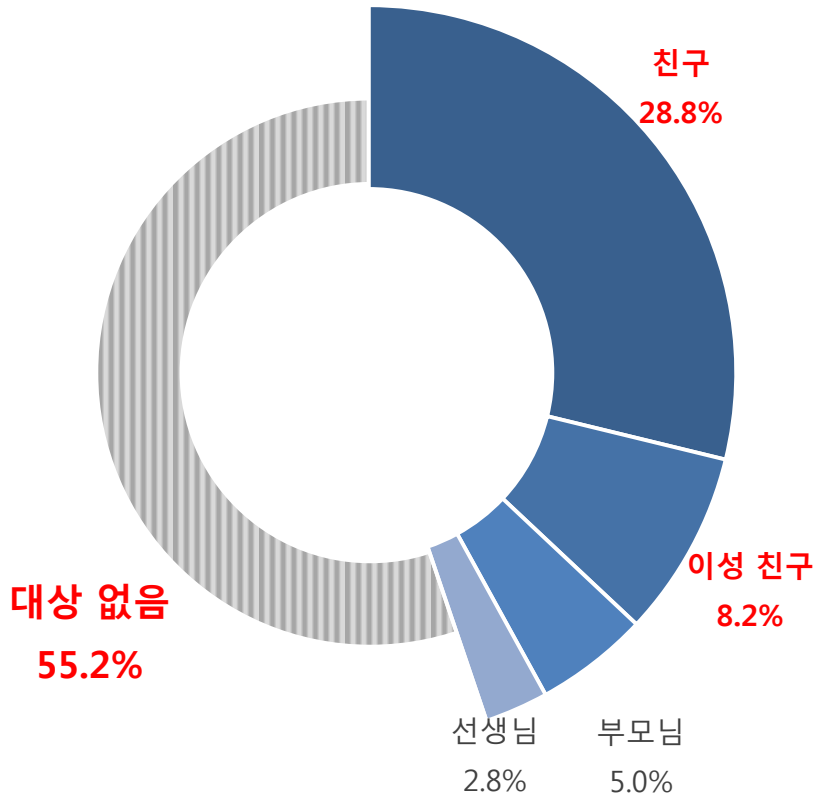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주요 사용 은어 중 좌측의 은어들의 경우 그 의미의 추적이 가능한 키워드들로서 해당 키워드를 통해 SNS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 낫닝겐 : Not+닝겐의 합성어로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
- 노잼 : No+재미의 합성어로서 재미없다라는 의미
- 열폭 : 열등감 폭발하다 라는 문장의 줄임 말
- 솔까 : 솔직히 까 놓고 말하다 라는 문장의 줄임 말
- 극혐 : 극도로 혐오하다 라는 문장의 줄임 말

또한, 여론 조사 진행 역시 원할한 조사가 가능한 키워드로 낫닝겐, 노잼, 열폭 키워드를 선정하여 인지 조사에 활용 하였다.

1.2.4 WEB 사이트분석 - "은어" (10.2%)

[은어의 사용 대상별 분류]



[주요 내용]

• 은어를 사용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은어 데이터의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이성친구(8.2%)** > 부모님(5.0%) > 선생님(2.8%) 순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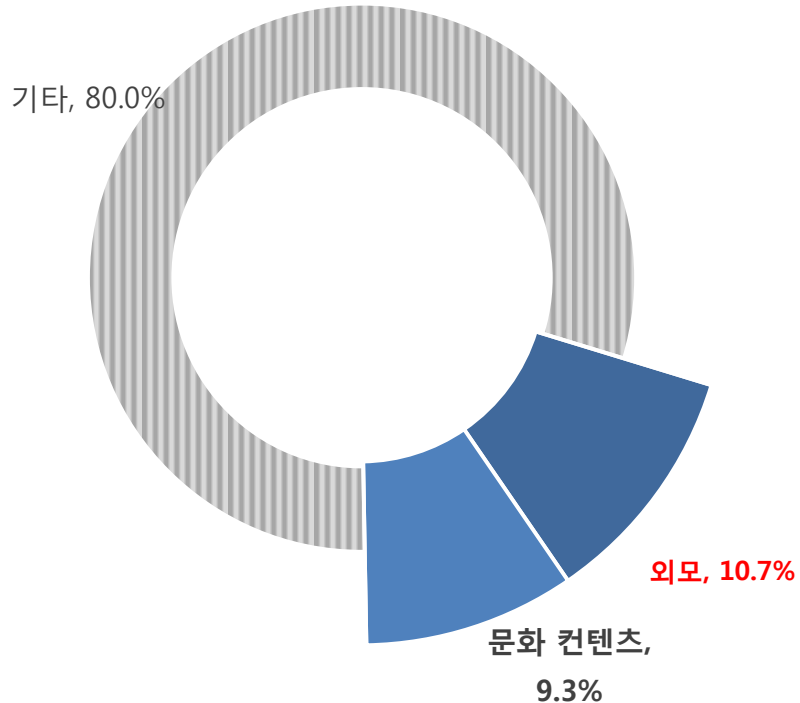


• 또한, 특정 대상을 지정 하지 않고 은어를 사용하는 내용도 **55.2%**로 다수 확인 되었다.

• 이는 은어사용이 도래나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일상적으로 은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2.4 WEB 사이트분석 - "은어" (10.2%)

[은어의 사용 주제별 분류]



[주요 내용]

- 은어를 사용하는 주제는 **외모(10.7%)**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문화 콘텐츠(영화,음악 등 / 9.3%)에 대한 내용이 다음으로 높게 확인 되었다.



- 기타 내용은 80.0%로 높게 확인 되었지만 주제 파악이나 분류가 불가능 한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 기타 내용 예시 : 눈팅족 / 아*발 볼게 없네

1.2.4 WEB 사이트분석 - "은어" (10.2%)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친구들과의 단톡방 / **ㅈㄱㄴ**
친구들한테 많이 전파했습니다..

꿀잼 / 공부가 잘되네

눈팅 하고 있는거 다
알아 / 쪽지 좀

친구따라 압구정갔다 이제동봤
다. / 친구**쌍수**상담받으러 압
구정 성형외과—갔는데 이제동이
있드라 어디수술하려는걸가. Vip
룸에 있던데

친구가 치킨 사준당 / **人ㄷ大**

짹녀가 살짝 통통하고 그런체질이
었는데 막 남들이 개보고 살좀빠라느
니 뭐 먹고있음 말은 안해도 짜돼지
년ㅋ 이렇게 보는거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속상했거든

1.2.5 WEB 사이트분석 - "상처" (1.3%)

- 힘든 상태를 표현하는 "상처", "ㅠㅠ", "싫어", "아프다", "우울하다"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했으며,
- 특히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청소년 사용언어의 **1.3%** 작은 수치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극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했을 때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님**

[연관어]



[주요 내용]

- 상처 관련 글의 대부분은 "**자살하고 싶다**", "**너무 아프고 힘들다**" 와 같이 감정은 단순히 나타낸 글로써 그 원인 파악을 하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으로 확인 되었다.
- 다만, 상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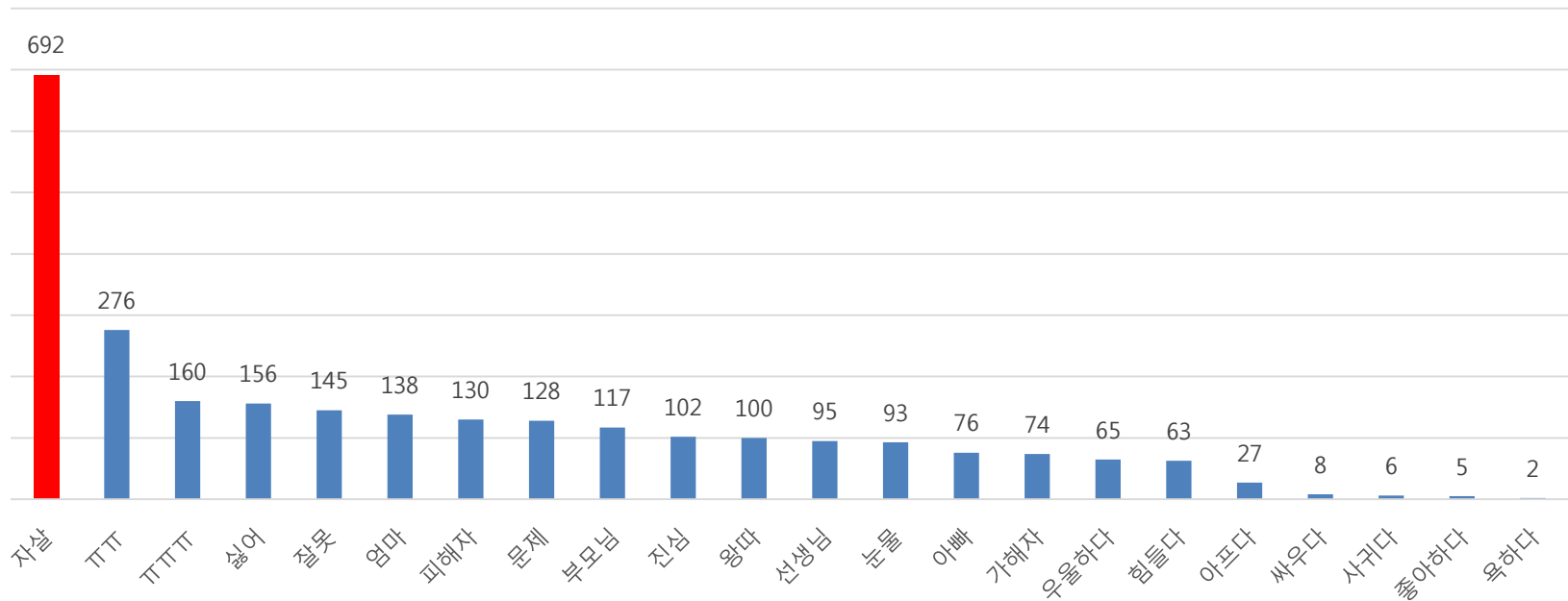


자살 언급 글 예시)

- 자살말림 지금 씨발거
- 자살하거파 짐 다 내려노코
- 자살생각중 진지함
- 자살하러간다 씨발 죽고싶다
- 자살하고싶다 내년엔 죽어있길

1.2.5 WEB 사이트분석 - “상처” (1.3%)

[상처 글 연관어 언급 현황]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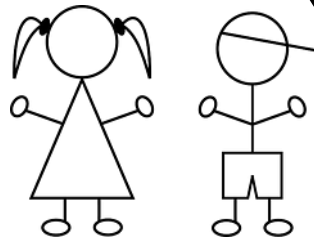
- 상처 관련 글에서는 “자살” 이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다음으로는 “ㅠㅠ”, 또는 “ㅠㅠㅠ” 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자주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2.5 WEB 사이트분석 - "상처" (1.3%)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밤만되면 울고 오늘도 울고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이런현상 정녕 이것이 **우울증**인가..요?

지루한 **신세한탄**이다. 안녕잠이 안오는 21살 남자놈이다오 늘따라 속이 뒤집어져서 이런데다 글 적고 있다 ㅋㅋㅋ똥금없지만 내 과거를 얘기할께난 별로 좋은 유년기를 못보냈다미취학 아동일때는 부모가 맞벌이 하는 바람에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했고부모님은 거의 매일 싸우셔서 **항상 불안에 떨면서 생활했지**



내가 저래서 영나 저분별로안좋아함 / 평소에 좇목질로 인맥양성하고 게시판에선 존댓말쓰고 욕안하는 착한이미지로 유저들 세뇌 이런일 터지면 분명 지가잘못한건데 결국 상대한 내가욕다쳐먹음 그리고 지치고 포기한척 "제잘못이네요 죄송합니다ㅎㅎ" 피해자코스프레 맞는 말하고도 **내가다욕쳐먹고** 저새끼 진심 악마

솔직하게 그자매분한테 진실된감정은없음 -- / 그냥 **상처받은 제맘** 치유할 목적으로 도리어 상처하나더안을까 그게걱정

피해의식,강박증.. 극도의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 예전에 한참 음지에 있었어요..극도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있었죠..그러다 극복하고 한동안은 그런 걱정안했던것같아요그런데 무슨일에서인지 요즘 다시 ㅠ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1.2.6 WEB 사이트분석 - “편하, 비하” (1.0%)

- 청소년은 주로 **외모**에 대한 편하나 비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특히 **비만에** 대한 편하나 비하가 많았으며, 자신이 비만일 경우 **스스로에 대한 편하나 비하**도 많이 표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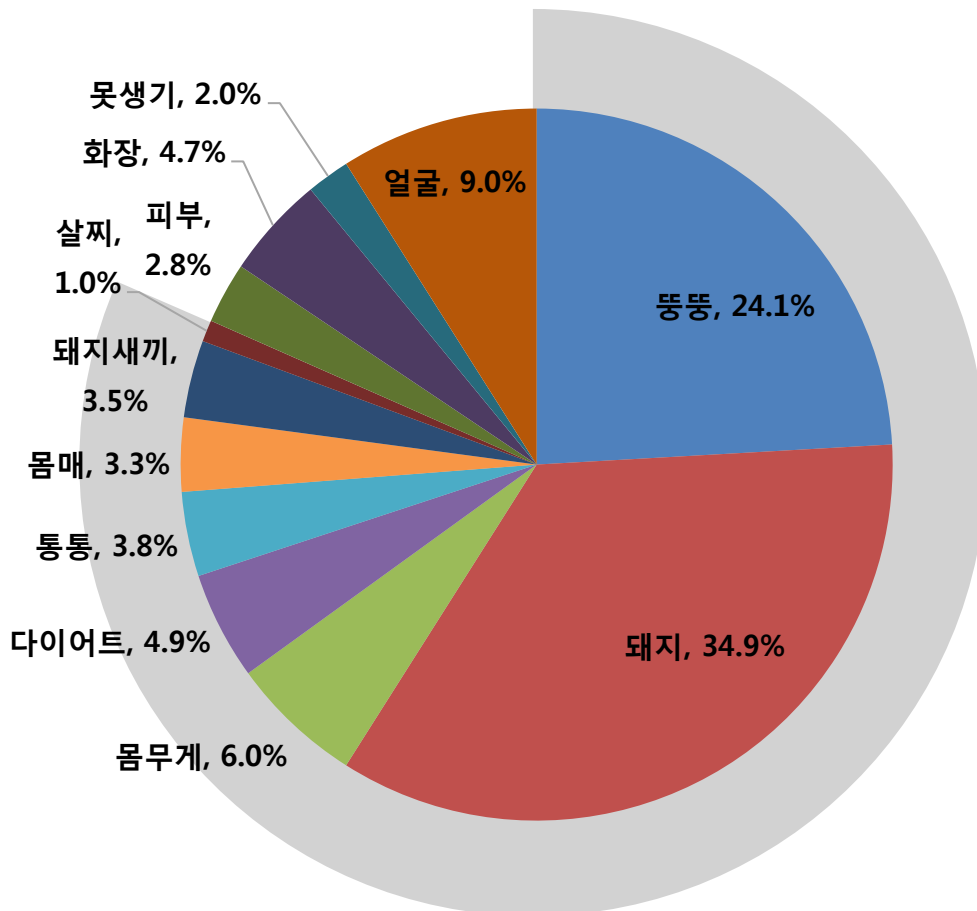
[주요 내용]

- 편하, 비하 내용의 **77.1%**가 **외모** 관련 된 내용의 비하로써 **몸매(비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또한 **“똥똥하다”, “돼지새끼”** 등과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자기비하 내용, **“엠통인생”** 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 하여 스스로를 비하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엠통 : 어머니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표현의 욕설

[청소년들의 외모 비하 내용]



[주요 내용]

- 청소년들의 외모 비하 내용 대부분이 (왼쪽 그래프의 회색 표시 영역) 비만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 상대방에 대한 비하나 자기 비하에 대한 내용으로써 비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펼하, 비하 관련 글 중 “엠창” 키워드 사용 글 점유율]



"엠창"
키워드 사용
글, 51.4%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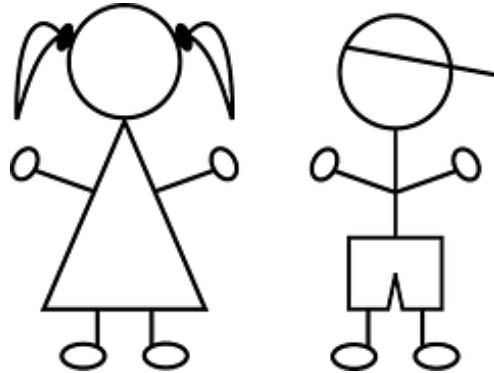
- 펼하나 비하 관련 글 중에서 “엠창”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글이 **51.4%**로 절반 이상 되었다.
- 또한 “엠창”을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함께 “엠창인생”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욕설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 해당 키워드가 지니는 저속한 의미를 감안 할 때 청소년의 펼하나 비하에 대한 표현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1.2.6 WEB 사이트분석 - "편하, 비하" (1.0%)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오늘도 **엠창인생**의
하루가 끝이 납니다 / 모
두들 굿나잇

누나가 **김치년**이드라 사
브 / 네이트판도 하고 내가
누나 네이트판해? 물어봤는
데한테 근데 거기애들과는
다르다고 그러는거 나중에
누나 컴터하는거 보니까진
짜 전형적인 보증성하고 르
○ **졸못**에다가 **씹돼지**
인데 남자 평가하고 사브완
전 판녀드라



엠창인생 편돌이새끼들 빠치게하
는법ㅋㅋ.txt / 야간알바 빠치게 하는법.
한 밤 11시쯤에 가서 라면하나 사놓고
하는거없이 테이블 앉아서 두세시간 있
어라편돌이새끼 일해야하는데 손님있
어서 깔끄러워함ㅋㅋㅋ

내가 **엠창인생**이라니
/ 흑흑

와.. 진짜 소름 끼친다. 피시방인데 옆에 일베충 4명
있음 / 생긴거 **좃 안경돼지새끼들**인데 먼
저온놈들이 얘기하는게 일베 같았는데, 어떤 새끼
가 늦게들어오고 "뭐가 그렇게 즐겁냐 이기야" 이
러네

1.2.7 WEB 사이트분석 - “왕따” (0.9%)

- 왕따 관련 글의 40.6%에서 “괴롭히다”, “힘들다”, “무섭다”는 표현이 확인된다.
- 왕따에 대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힘든 점을 많이 호소 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연관어]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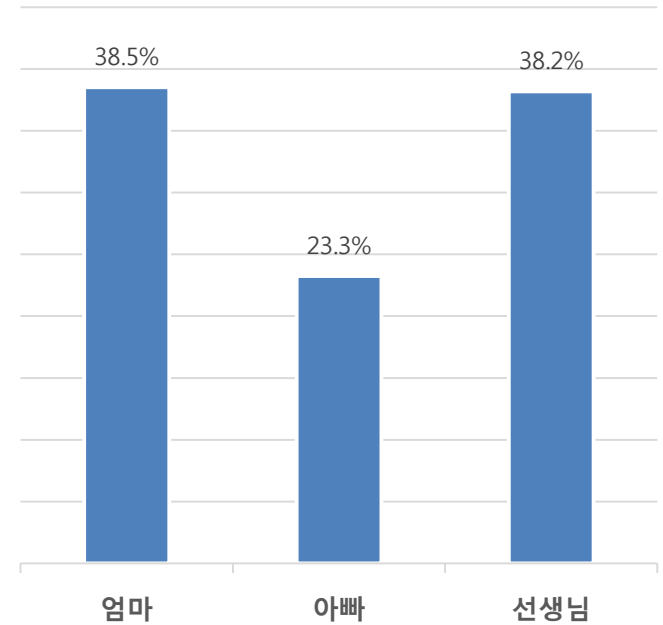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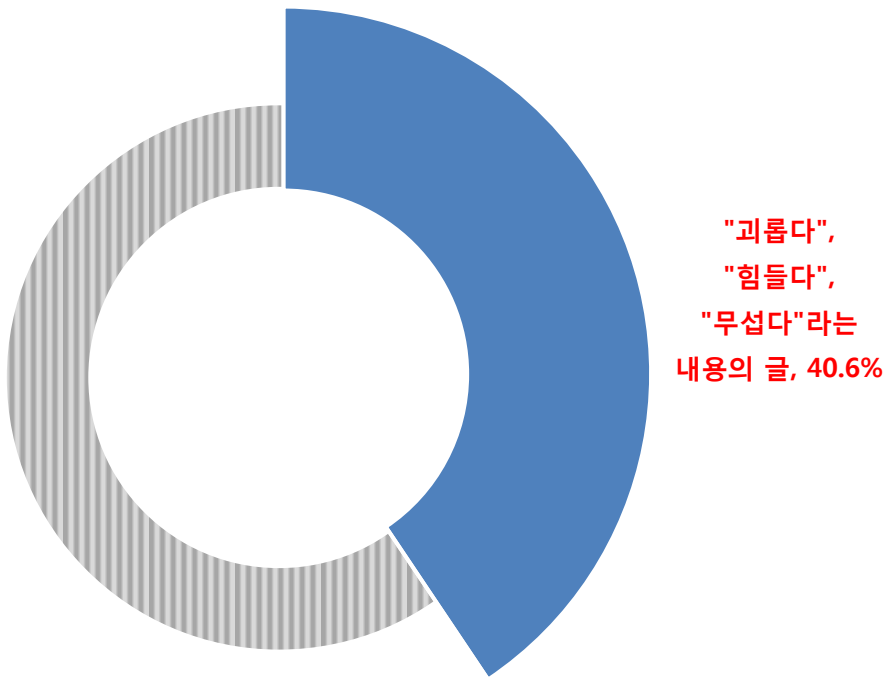
- 연관어 분석 결과, “힘들다”, “괴롭히다” 등 직접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보였다.



- 또한 “성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왕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성격**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유추 되었으며 “엄마”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 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1.2.7 WEB 사이트분석 - "왕따" (0.9%)

[왕따 글의 주요 내용 및 주요 언급 주변 인물]



[주요 내용]

왕따 관련 글의 40.6%가 고통을 호소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관련 주변 인물로 **엄마와 선생님이 주로 언급되어 해당 인물들의 역할이 중요** 할 것으로 유추 되었다.

1.2.7 WEB 사이트분석 - "왕따" (0.9%)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너네 **왕따**당한적있음? / 난
중학교 2학년?3학년까지 왕따
당했는데 그때참죽같았다 내가
어떻게 버틴지모름 왕따보면
돼지새끼 오타쿠같이생긴 놈이
있거나 키작고 힘없는애들 등
거의 두부류인데 난 후자 쪽에
속해있었음

찐따,왕따들이랑 대화 많
이 해봤는데 / 모두 가정이
불우이웃 가난하고 할머니랑
살거나 가정폭력 심각 불쌍하
더라.

진정걸고 **왕따**탈출하
고싶다 / 제발 진짜 개절
실

왕따를시켰어요 / 여기 글왜
올렸냐고 물어보시는분들많으
신데요 용서받을라고올렸었죠
그런데 막상 생각해봤는데 전
잘못한게 없는거같네요 제가
맨처음에 괴롭히던 애는 제가
괴롭히기 전부터 왕따였어요

왕따랑 친구 할수있을거같아?? / 나작년에 왕따
였고 잘나가는애들한테 놀림감이였어 진짜 살기싫
었거든 화장실에 숨어잇고그랬는데 이번 반배정에
도 친한애한명도없고 아는애 마저도 없어서 진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다TTTTT 니네 같으면 아
무리 착하고성격좋아도 왕따였던애라면 친구 하기
싫을거 같지TTTTTTT하



1.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1.3 SNS 데이터 분석

1.3.1 SNS 데이터 내용 분류

다양한 청소년의 사용 은어(또는 줄임말) 중 그 용도와 의미의 추적이 가능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노잼

“재미 없다” 라는 의미의 합성어 (No+ 재미)

분석 대상 : 239,216 건

극혐

“극도로 혐오하다”라는 내용의 줄임말

분석 대상 : 199,913 건

솔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라는 내용의 줄임말

분석 대상 : 92,616 건

낫닝겐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합성어 (Not+ 닝겐)

분석 대상 : 90,211 건

열폭

“열등감 폭발” 이라는 내용의 줄임말

분석 대상 : 65,797 건

1.3.2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노잼” (239,216건)

- “노잼” 이라는 단어는 주로 **영화나 만화, 게임**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이한 점은, 대중매체의 콘텐츠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았음
- 청소년이 “노잼”을 사용하는 것에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겸손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

[연관어]



[주요 내용]



<실제 콘텐츠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PPbhbJU6PA8>

해당 콘텐츠는 유명 셀럽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 및 촬영한 콘텐츠로써 292,653건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1.3.2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노잼" (239,216건)

[노잼으로 언급 되어 높은 호응을 받은 콘텐츠]

[게임]

(노잼주의) 심심해서 그린.....게임하는...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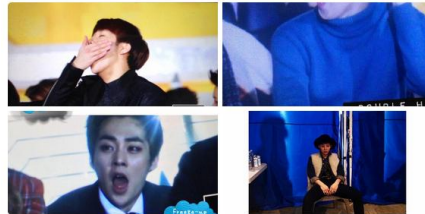
blog.naver.com/whnw11/2202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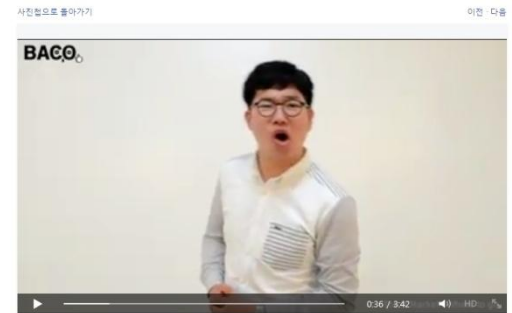
[사진]

레몬솔트 @lemon_salt 팔로우

가요대전이 얼마나 노잼인가를 보여주는 사진들



[영상]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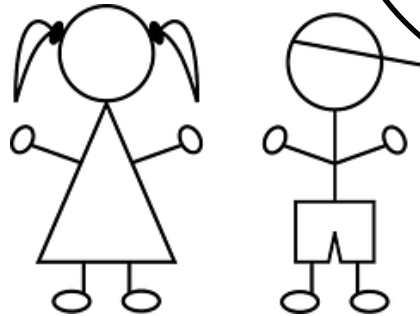
- 노잼으로 언급 되어 높은 호응을 받은 콘텐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직접 제작 또는 기존의 콘텐츠를 편집하여 재 탄생 시킨 콘텐츠들 이라는 점이다.
-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해당 콘텐츠는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공감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 되었다.

1.3.2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노잼" (239,216건)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호오즈키의 냉철 입덕계기동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 ' /여
성향 주의 /네타 살짝 주의 /
예스잼일지 **노잼**일지는 책
임질수 없음 ;ㅁ; /입덕영상으
로 만들다가 영업영상이 되어
버린

이춤이 겁나유행해서 차라
리 딥하우스가 유행 좇나했
음 좋겠다 진심 간절한 바
램이다 요즘 이 춤에 빠져
있음 클럽에서 출거임 떡춤
노잼 <http://goo.gl/9IRgJc>
Rave and Shuffle 모음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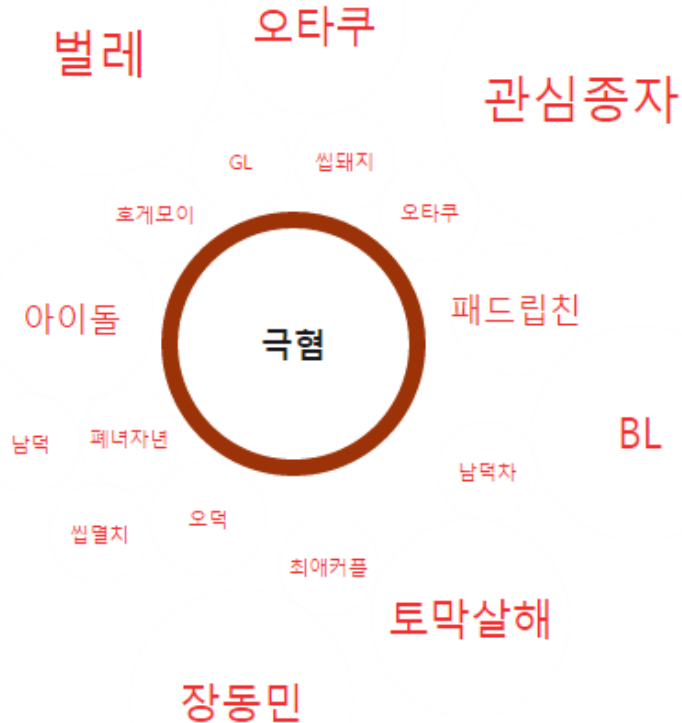
롤 **노잼** urf인가 뭔가도
영상 한 번 보니까 그닥 하
고 싶지 않고 마영전 하러
갑니다! WingofSaint 친추
주세요

영화 욕하는 거 즐기지 않지만 리뷰 올려봄
(부들부들) 트랜스포머의 메인 테마인 "변신"
자체를 별로 살리지 못한 것 같고 사람이든
로봇이든 인물들을 너무 전형적이고 매력 없
게 죽여놓은 것이 영화의 **노잼** 요소가 아닐
까 한다

1.3.3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극혐" (199,9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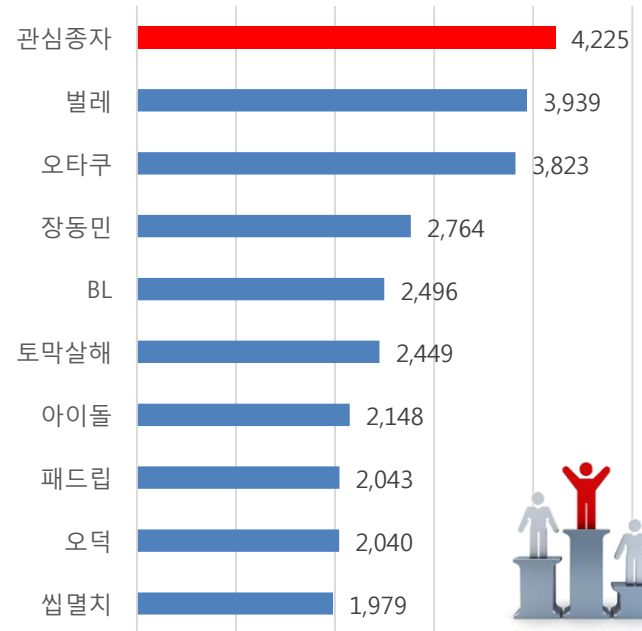
- "극혐" 이라는 단어를 주로 관심종자(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단어와 함께 주로 사용함
- 또한 극혐이라는 단어에 동성애("호게모이" "BL", "GL")관련 단어에 함께 사용하는 것 나타남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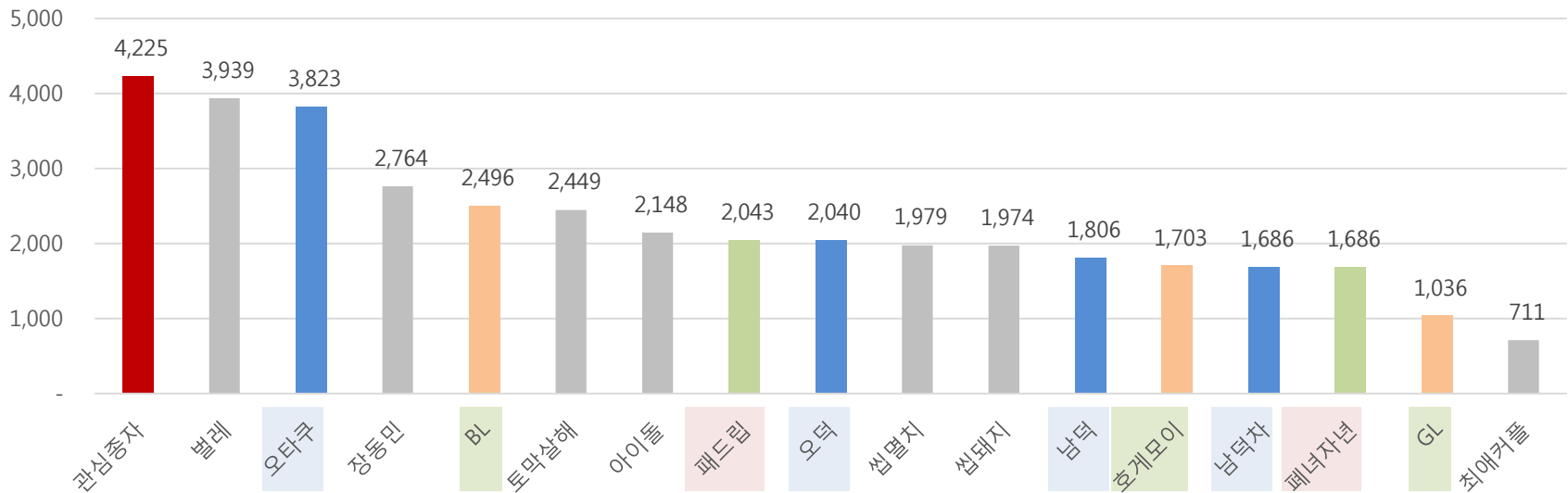
[주요 내용]

청소년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 Top 10



1.3.3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극혐" (199,913건)

[극혐 글 연관어 언급 현황]



[주요 내용]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관심종자로 확인 되었다. 관심종자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써 잘난척, 불쌍한척, 잘하는척 등의 행동으로 튀는 사람을 뜻한다.

그외 BL, GL, 호계모이와 같이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오타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3.3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극혐" (199,913건)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이런 **관심종자** 어휴 **극혐**
 임 지는 빠순이었던 주제에 근
 본 없기는 마찬가지로 거 묻은 개
 나무라는 응가 묻은 엠버 로즈

호게모이 떡 썰 푸는
 여덕 개혐;; 비엘소설 극
 혐;; 머독이랑 대정령은 왜
 위음;; 이 지랄 하던 분들
 이 여덕이 남덕 팔로우 안
 받는다니까 한창 날뛰는
 걸 보고 좀 웃었다

그림쟁이가 **관심종자** 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기 광고가 없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을 깔보는 관심종자가 나쁜거지
 관심종자라고 다 나쁜것도 아니
 고 저런식으로 **극혐**이라고 표
 현하는게 더 기분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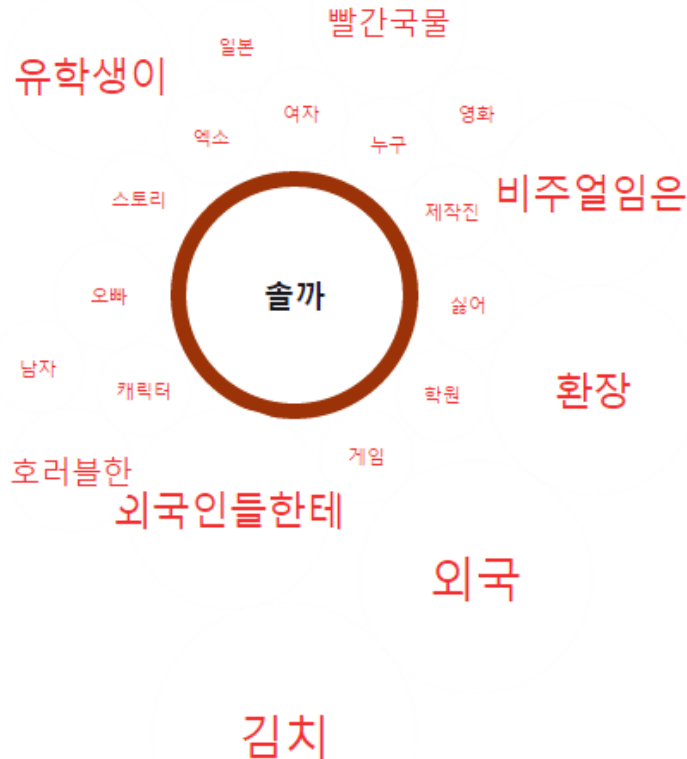
벌레는 진짜 뭐라 할것 없
 이 존나 싫어합니다 **극혐**
극혐 진짜로 엄청나게 정
 말 싫어해요

나 사실 존나 대놓고 **호**
게모이 하악하악!! 팍
 팍 밀어드릴게요!! 하는
 애니 존나 **극혐**이랄ㅋ
 ㅋㅋㅋㅋ 프리나 세계제
 일이나 기타등등이나 아
 예 안 봤고 존나 싫어하는
 쪽에 가까운덱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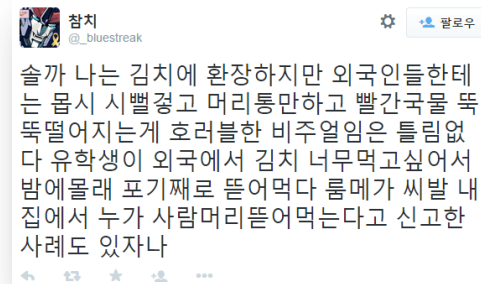
1.3.4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솔까" (92,616건)

- 솔까(솔직히 까놓고 말해) 단어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주제는 **김치**(한국의 음식문화)로 확인되었다.
- 솔까와 관련해 대상으로는 "**오빠**"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주제별로는 "**게임**" 또는 "**연예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관어]



[주요 내용]



김치에 대한
헤프닝이 재
미, 공감 등
의 원인으로
1,942 건의
리트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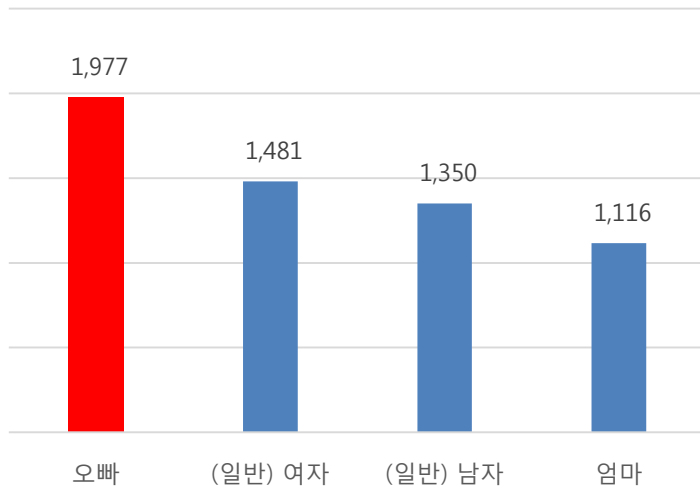
<실제 작성 글 캡처>

“솔까”에 대한 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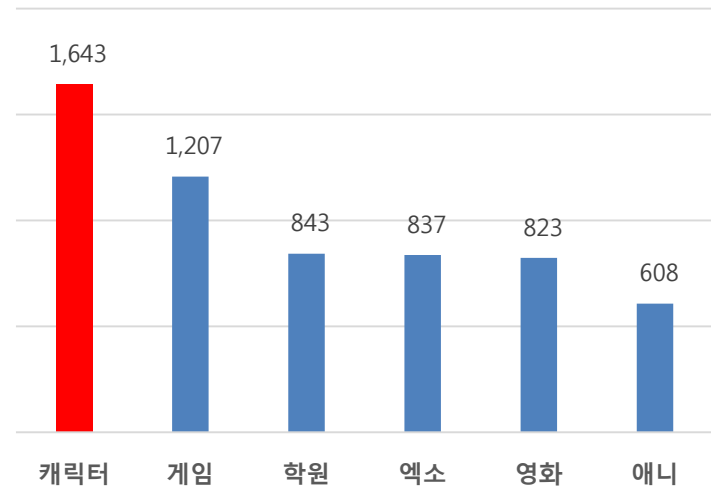
오빠 (1977건) > 여자(1,481건) > 남자 (1,350 건) 으로 확인 되었으며,
주제로는 **게임**(캐릭터, 2850 건) > 학원 (843건) > 엑소 (837건)으로 확인 되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고 싶은 대상 및 주제]

[대상]



[주제]



[주요 내용]

솔직히 말하고 싶은 대상의 경우 **오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뒤를 이어 (일반)여자, (일반)남자, 엄마 순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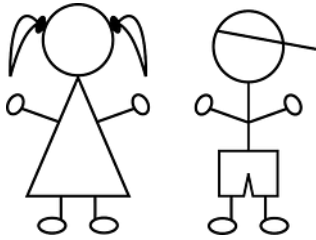
주제의 경우 캐릭터가 가장 높게 확인 되었는데, 뒤를 이은 게임 역시 캐릭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키워드로써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오빠한테 감탄하고 그덕에 감동하고
행복한 팬질을 하든 되는데 뭐하러 실망
하고 쿡쿡해지는 팬질을 꾸역꾸역 이어
가는건지 **솔까** 이해안되뮤

오빠가 촌에서 고생하는건 알겠
는데 **솔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종일 자거나 티비보거나 둘중
하나구만 그런거라면 오빠 좀 더
하라고해 어차피 오빠 집에 있
어봤자 백수라고 쪼이기밖에 더하
나 심심하긴해도 뭐라도 명분 쓰
고있으면 칭찬이라도 받지

김치 위상은 **솔까** 한국이
떨어뜨리고있는거지 요즘 김치
안먹는애들많고 내친구중
에서도 안먹는애들수두룩함 거기
다가 김치녀 김치녀 거리면서
김치를 비하하는 걸로 쓰질않
나 —— 중국 탓할게아니다 이
건



김치 단무지 반찬대충 무친나물이나
이런거 한개 해서 내주고 메인메뉴도
솔까 그냥저냥한데 가격 저렴한걸로
밀어붙히는 분식집이 지금 내가 26살
인데 나 16살인가부터 계속 영업중임
심지어 장사잘됨;;;; 김밥 절대 맛있지
않음;;;;

게임은 솔까 나 금
방핵ㅋㅋㅋㅋㅋㅋ큐
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 진심 집념으로
플레이한다곡ㅋㅋㅋ
ㅋㅋㅋㅋ큐ㅠㅠㅠ

- 청소년이 넛닝겐이라는 은어를 통해 사람이 아니다(긍정적인 표현)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주로 셀럽으로 확인 되었다.
- 특히, 아이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아이돌 외 셀럽에 "이영애"에 대한 내용이 다수있었다.

[연관어]



[주요 내용]

<실제 작성 글>

아 무한도전 한글특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보자면서 넛닝겐 개이득
 이런거 방송하고 있억ㅋㅋㅋㅋㅋㅋㅋㅋ

무한도전 한글날편 보고 느낀점: 나는 개이득 넛닝겐
 등을 잘 안쓴다 내 탐라도 전체적으로 잘 안쓴다 내 탐
 라는 10대보다 20대가 더 많다 유행어들 따라가기엔
 다 늙으셨나보다

넛닝겐이란 단어 무한도전에서 생전 처음 봄

2014년 10월 11일 방송 된 무한도전 '한글특집'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확인 되었
 는데, 한글 특집에서 신조어를 그대로 보
 여 주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다
 수 확인 되었다.

방송의 의도는 긍정적일지라도 시청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낫닝겐의 연관어에서 발견된 “무한도전”]

[연관어]



[주요 내용]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셀럽은 아이돌 그룹 “EXO (세훈,시민,찬열 등)”

셀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연예계쪽이 높은 것으로 유추 되었으며, 이는 유명인들의 말이나 행동이 중요 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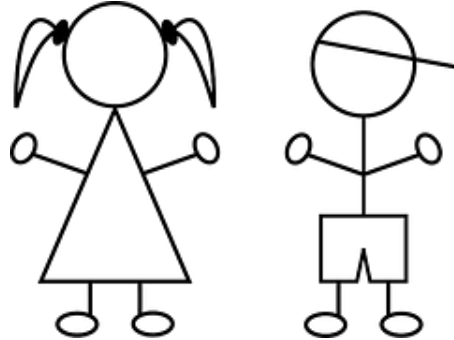
1.3.5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낫닝겐" (90,211건)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별에서 온 순백미녀" 화이트
드레스로 여신자태 뽐내는 전지
현 이 언니는 **낫닝겐**이야
여신이야

여캐릭터 버전이 없길
래 만들어봤습니다(개
잉여) 0개 **낫닝겐**
1~8개 머글 7~23개
시민 24~39개 일반오
덕 40~72개 씹덕
73~94개 개씹덕
95~100개 카오스

140123 서울가요대상 레드카
펫 백현이♥ **낫닝겐**.....



이영애 홍콩 까르띠에 행
사 **낫닝겐** 클래스

시우가 세나 손목 잡아당기고 얼굴 가
까이 갔을때 보던 엄마가 안돼 외침
ㅋㅋ 무한도전 보고 **낫닝겐**이란 말
을 알고 와서 오늘 명수 나올때 낫닝겐
이라고 하더니ㅋㅋㅋㅋ 우리 엄마 명
수 좋아하는구나 ㅋㅋㅋ 엄마 나랑 같
이 인피니트 팔래요 ㅋㅋㅋ

- “열폭”이라는 은어의 경우 원래 뜻은 ‘열등감이 폭발하다’ 라는 의미로 생긴 은어 였으나, 현재는 ‘열이 폭발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 이는 은어의 뜻이 공유 되지 못한 케이스로써 은어로 인한 소통의 오류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연관어]



[주요 내용]

<“열등감이 폭발하다”라는 의미의 글 예시>

- 안봐도 뻔하잖아 니눈엔 이게 그저 연애를 한다고 열폭하는걸로 밖에 안보이겠지 니 여자친구 위로해 주느라 빠수니가 아무리 일방적인 사랑을 준다지만 최소한 인간취급은 해줘라 노예노예하니까 진짜 atm인줄 아냐 나도 감정이 있어요 이새끼야
- "천만원짜리 자전거를 타면 무서워서 길에 세워둘 수도 없으니 영화도 못 보고 쇼핑도 못하고 식당도 못 가고 그게 자전거의 노예가 아니면 뭐예요 " 라는 트윗을 쓰게 된 사고의 메카니즘이 궁금하다 열폭도 아닌 것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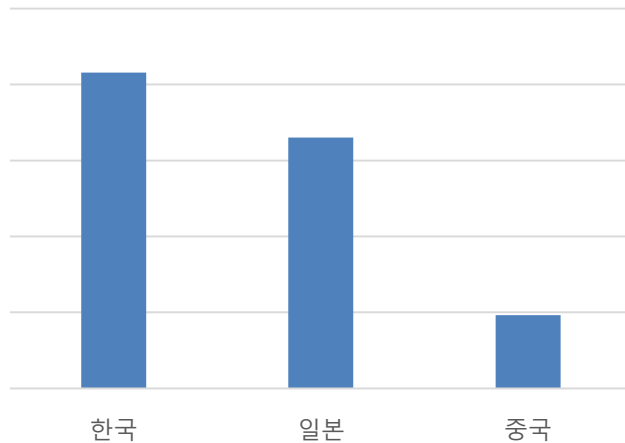
<“열이 폭발하다(화가 나다)”라는 의미의 글 예시>

- 알바몬 최저시급 광고로 인해 노예 알바생을 고용하지 못해 화가 난 주인들 반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바몬 불매운동 하겠다고 열폭중
- 미국 국무부, 일본 비난한 역사학자들 공식지시, 정신나간 2ch 일본 반응 및 한국 네티즌 열폭 반응 속좁은 일본인들 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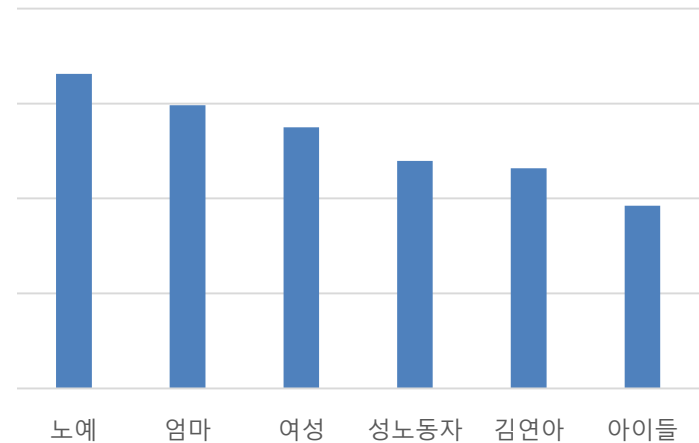
1.3.6 SNS 데이터 분류별 분석 - "열폭" (65,797건)

['인물'과 '국가' 구분으로 확인 해 본 열폭]

[국가]



[인물]



[주요 내용]

- 국가로 구분하여 본 열폭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내용이 언급 되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한국인으로써 가지는 열등감' 으로 확인 되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불쌍한 이유는, 아무리 이렇게 열폭해봤자 결국 한국교회는 여전히 한국교회라는 사실" 이라는 내용과 같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열등감에 대한 내용으로써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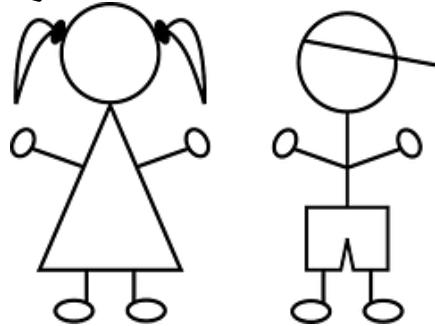
청소년의 실제 작성 글 예시

서울대 롤 팀명 '삼일한' 논란 카 씨바
대가리 좋다고 뻘히 보이는 일밍아웃
지적마저 지잡생들 **열폭**이라고 쳐모
는거보소 재수없는새끼들

알바몬 최저시급 광고로 인해 노
예 알바생을 고용하지 못해 화가
난 주인들 반응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알바몬 불매운동 하겠다고

열폭중

사람관계에 참 지친다 웃음
뒷면에 그 가식 한국사람들은
특히 더, 질투에서 나온 마녀
사냥 **열폭** 뒷담 그리고 다
시 앞에선 친구인척 지겹고
역겨워



내면과 외면이 모두 납작한 K-인은
입체적 캐릭터의 비한국적-한국인을
보면, 즉각 울화를 축적하기 시작하
고, 이해 불능의 공통 분모가 화제로
떠오르면, 공분을 드러내며 연쇄적
양태로 **열폭**한다 K-집단주의의 자
기 강화 기제

"돈쓰는 여자 화려한 여자 혐오하
는 남자들은 말이에요 그 여자들
이 자기같이 가난한 추남은 절대
안쳐다 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
어요 돈많은 사장이나 원빈이나
장동건 같은 그런 남자를 떠올
리면서 자기랑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폭**하는 거죠 "



2. 여론 조사

2.1 조사 설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3세 이상 일반 국민(중학생 이상)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선 RDD 전화번호를 이용한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전화조사
 유효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명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연령/지역별 할당
 조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6월 2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은어 표현 인지도, 다른 세대와 소통 시 불편경험, 언어사용의 행동 영향력, 청소년 은어 사용의 세대간 갈등 유발 가능성, 청소년 언어 사용 교정 필요성 등
분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 리서치(밀워드 브라운)
표본 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신뢰수준에 $\pm 3.1\%$ point

2.2 응답자 현황

		사례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00)	50.0
	여자	(500)	50.0
연령별	13-19세	(100)	10.0
	20대	(147)	14.7
	30대	(171)	17.1
	40대	(197)	19.7
	50대	(181)	18.1
	60세 이상	(204)	20.4
지역별	서울	(200)	20.0
	인천/경기	(293)	29.3
	대전/충북/충남	(105)	10.5
	광주/전북/전남	(100)	10.0
	대구/경북	(104)	10.4
	부산/울산/경남	(156)	15.6
	강원/제주	(42)	4.2
	농/임/어업	(16)	1.6
직업별	자영업	(100)	10.0
	블루칼라	(103)	10.3
	화이트칼라	(366)	36.6
	가정주부	(188)	18.8
	학생	(146)	14.6
	무직/기타	(78)	7.8
	모름/무응답	(3)	0.3

		사례수	%
전체		(1,000)	100.0
세대별	10대청소년	(100)	10.0
	성인	(900)	90.0
평소 언어 습관	은어사용	(262)	26.2
	은어비사용	(733)	73.3
	모름/무응답	(5)	0.5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78)	17.8
	고졸	(219)	21.9
	대재 이상	(584)	58.4
	모름/무응답	(20)	2.0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260)	26.0
	청소년 비동거 성인	(640)	64.0
	청소년	(100)	10.0
월평균 소득별	100만원 이하	(67)	6.7
	101만원-200만원	(81)	8.1
	201만원-300만원	(143)	14.3
	301만원-400만원	(152)	15.2
	401만원-500만원	(123)	12.3
	501만원 이상	(245)	24.5
	모름/무응답	(189)	18.9

2.3 주요 결과 요약

[ㄱ. 우리나라 언어 사용 관련 문제와 해결]

- 우리나라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52.5%) 사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언론이나 방송'(35.6%)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	사회지도층의 막말 사용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저속한 표현	외래어, 외국어 남용	가정 내 언어폭력	기타
	52.5	15.0	11.8	8.6	8.5	0.7
언어 사용 관련 문제 해결 노력 주체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방송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각 가정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	교사, 학교 등의 공교육	술선수범이 필요한 사회지도층	기타
	35.6	20.4	17.2	13.8	12.1	0.3

- 특히, 13-19세(64.8%), 20대(63.1%), 학생(63.4%) 등 **젊은 세대 스스로도 청소년 언어사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
- 계층별 분석 결과, '언론 및 방송'이 가장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40.6%), 40대(43.4%), 블루칼라(40.7%), 화이트칼라(41.5%)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인 한편,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학생(39.3%), 청소년(4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서로 **세대별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ㄴ. 청소년 언어 인지도]

- 청소년이 사용하는 표현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은어는 '노잼'(재미 없다는 의미)이었으며, 이러한 청소년 언어 인지도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도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청소년 언어 인지도		노잼	열폭	넌닝겐
전체		46.9	38.9	18.5
세대별	10대 청소년	92.3	71.0	61.6
	성인	41.9	35.4	13.7

2.3 주요 결과 요약

[ㄷ. 언어 소통 관련 인식]

- 서로 다른 세대와 대화 및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에 '소통이 잘된다'는 인식이 응답자의 2/3 수준인 58.4%임
- 반면, 은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까운 42.7%로 나타남

서로 다른 세대와 대화 시, 소통 여부	소통이 잘된다	소통이 안 된다
	58.4	32.2

서로 다른 세대와 대화 시, 은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	불편 경험	불편 비경험
	42.7	48.3

- **소통이 잘 된다는 의견**은 13-19세 **청소년**(92.3%)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66.1%)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에 반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은 **50대**(42.3%), **60세이상** 등 고연령층(5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한편 세대간 대화 시 은어사용 불편함에 대해 **10대 청소년의 경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견이 87.7%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성인의 경우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46.2%)이 높게 나타남

[ㄹ.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이 사용하는 은어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점은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31.0%), '올바른 한글학습 어려움'(28.9%)

청소년 은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한글을 익히기 어렵다	다른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은어를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이 생긴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	무응답
	31.0	28.9	18.4	16.1	3.6	2.0

-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꼽은 의견은 **30대, 40대**(각각 35.4%), **화이트칼라**(35.5%), **청소년과 동거하는 성인**(35.7%)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임.
- '올바른 한글 학습'을 우려하는 의견은 **50대**(36.3%), **자영업, 가정주부**(각각 3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2.3 주요 결과 요약

- 청소년의 언어 습관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84.9%로 매우 높았고, 이러한 청소년 은어 사용과 관련해 가정 및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80% 이상으로 높았음.
- 청소년의 은어 사용이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인식도 82.1%

청소년 언어 습관-행동 영향 여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 및 학교의 교정 필요성	바로잡아줄 필요 있다	가정 및 학교 개입 필요 없다	청소년 은어사용과 세대 갈등 유발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84.9	13.4		86.3	12.7		82.1	16.6

-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언론 및 방송의 바른말 쓰기'(24.4%), '학교 인성교육'(23.5%) 등의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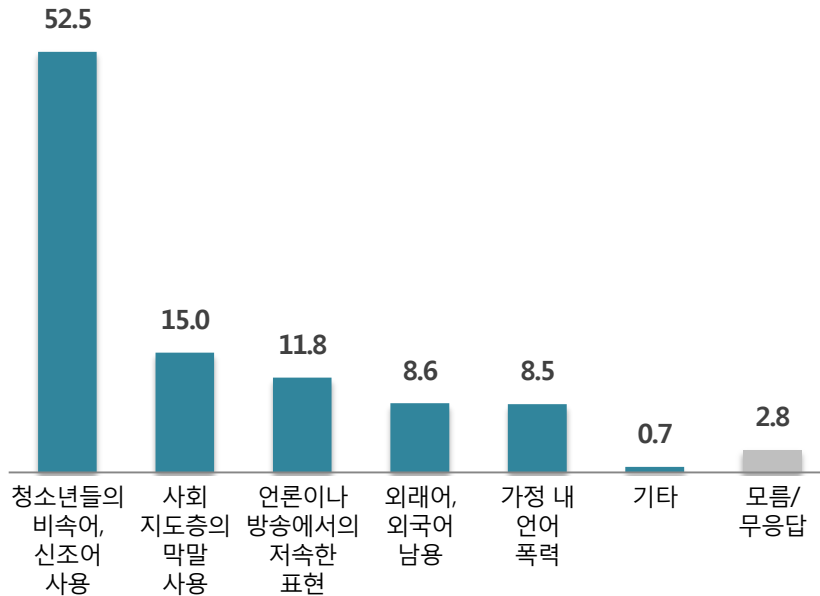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노력할 점	언론/방송에서 바른말 쓰기 노력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 강화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강화	청소년 본인들의 노력	정부차원의 캠페인이나 정책 마련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	모름/무응답
	24.4	23.5	20.1	18.8	7.3	4.9	0.9

- 연령별 분석 결과, '언론 및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30대(29.8%), 40대(30.2%)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청소년 본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학생(47.6%), 10대 청소년(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2.4.1 세부 조사 결과 “언어사용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분야”

Q ○○님께서서는 평소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 평소 우리나라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을 꼽은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사회 지도층의 막말’(15.0%),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저속한 표현’(11.8%), ‘외래어, 외국어 남용’(8.6%)등의 순이었음.
- 한편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연령층은 13-19세(64.8%)로 나타남.

2.4.1 세부 조사 결과 “언어사용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분야”

Q ○○님께서서는 평소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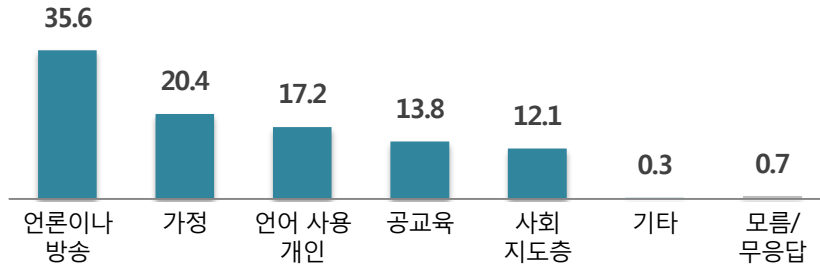
- 대부분 계층에서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 **특히, 13-19세(64.8%), 20대(63.1%), 학생(63.4%) 등 젊은 세대 스스로도 청소년 언어사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
- 한편 ‘**사회 지도층의 막말**’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견은 60세이상(31.6%) 고연령층, 블루칼라(19.5%), 가정주부(18.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	사회 지도층의 막말 사용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저속한 표현
전체		52.5	15.0	11.8
성	남자	50.3	17.7	11.5
	여자	54.7	12.3	12.2
연령	13-19세	64.8	7.1	6.1
	20대	63.1	5.2	7.7
	30대	57.3	12.5	12.4
	40대	54.1	11.6	12.1
	50대	55.1	14.5	15.6
	60세 이상	31.0	31.6	13.6
직업	농/임/어업	29.7	28.9	23.0
	자영업	47.5	17.9	11.4
	블루칼라	52.0	19.5	9.9
	화이트칼라	56.2	10.3	12.9
	가정주부	49.2	18.9	14.0
	학생	63.4	6.9	8.7
	무직/기타	33.9	30.6	8.9
평소 언어 습관	언어 사용	51.9	11.2	9.0
	언어 비사용	52.8	16.4	12.8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53.3	11.7	14.0
	청소년 비동거 성인	50.3	17.6	11.8
	청소년	64.8	7.1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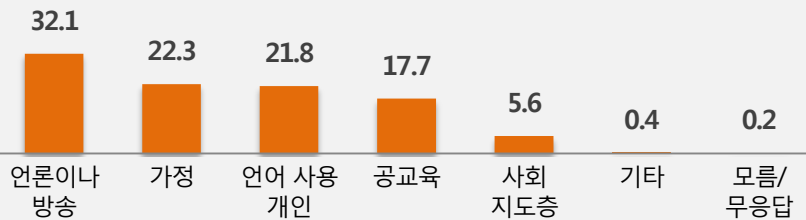
2.4.2 세부 조사 결과 “언어사용 문제 해결 노력을 위한 주체”

Q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n=1,000, %)



(청소년 비속어, 신조어 사용을 가장 우려되는 응답자, n=525, %)



- 우리나라 언어사용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로는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방송'을 꼽은 의견이 35.6%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각 가정'(20.4%),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17.2%), '교사, 학교 등의 공교육'(13.8%)등으로 나타남.
- 한편 앞서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n=525)을 가장 우려하는 계층에서도 '언론 및 방송'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2.4.2 세부 조사 결과 “언어사용 문제 해결 노력을 위한 주체”

Q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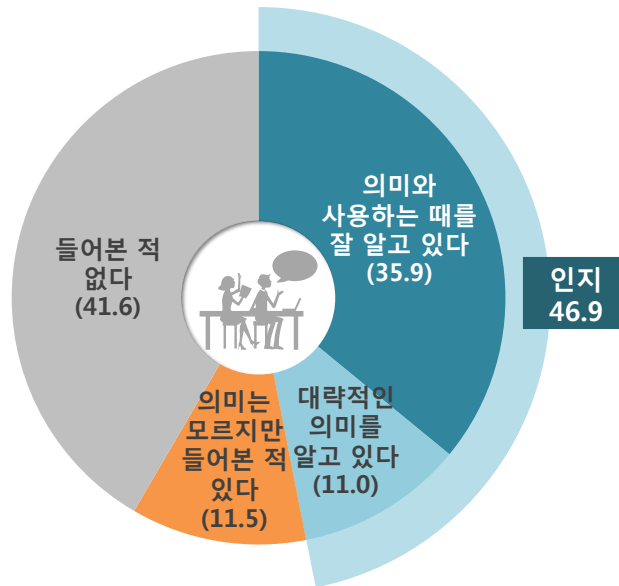
- 계층별 분석 결과, ‘언론 및 방송’이 가장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40.6%), 40대(43.4%), 블루칼라(40.7%), 화이트칼라(41.5%)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인 한편,
-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학생(39.3%), 청소년(4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방송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각 가정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
전체		35.6	20.4	17.2
성	남자	32.4	17.5	17.7
	여자	38.7	23.2	16.8
연령	13-19세	21.3	15.3	41.7
	20대	36.3	19.3	24.1
	30대	40.6	18.4	19.4
	40대	43.4	19.9	14.9
	50대	38.0	23.2	9.1
	60세 이상	28.2	23.2	8.0
직업	농/임/어업	5.1	48.3	5.3
	자영업	34.0	17.3	9.6
	블루칼라	40.7	16.0	15.8
	화이트칼라	41.5	20.2	15.6
	가정주부	38.5	28.4	10.3
	학생	23.6	17.5	39.3
평소 언어 습관	무직/기타	24.7	12.1	15.1
	은어 사용	34.9	20.0	22.7
청소년 동거여부	은어 비사용	36.0	20.5	15.3
	청소년 동거 성인	39.0	20.0	18.3
	청소년 비동거 성인	36.5	21.3	13.0
	청소년	21.3	15.3	41.7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 “노잼”

Q ○○님께서 ‘노잼’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청소년 언어 중 하나인 ‘노잼’(No+재미의 합성어로 재미없다는 것을 의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이 46.9%로 조사되었음. 연령별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의 92.3%가 ‘노잼’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 데에 반해, 60세 이상은 3.7%만이 해당 표현을 인지하는 등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인지도는 하락하였음.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 “노잼”

Q ○○님께서 ‘노잼’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연령별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92.3%)과 20대(94.2%) 대부분이 ‘노잼’을 알고 있는데 반해, 50대(61.6%)와 60세이상(81.7%) 등 고연령층의 절반 이상은 ‘노잼’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과 동거하는 성인(44.2%)과 청소년과 동거하지 않는 성인(40.9%)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분		인지 *	불완전인지 **	비인지
전체		46.9	11.5	41.6
성	남자	46.8	11.5	41.7
	여자	47.0	11.5	41.5
연령	13-19세	92.3	4.2	3.5
	20대	94.2	1.3	4.5
	30대	69.5	9.7	20.8
	40대	41.5	11.8	46.7
	50대	16.7	21.7	61.6
	60세 이상	3.7	14.7	81.7
직업	농/임/어업	12.7	12.7	74.7
	자영업	23.1	14.6	62.3
	블루칼라	36.6	13.3	50.1
	화이트칼라	57.2	10.8	32.0
	가정주부	21.2	16.8	62.0
	학생	93.4	2.9	3.7
평소 언어 습관	무직/기타	26.5	9.6	63.9
	은어 사용	77.9	5.1	17.0
	은어 비사용	36.0	13.9	50.1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44.2	11.4	44.4
	청소년 비동거 성인	40.9	12.7	46.4
	청소년	92.3	4.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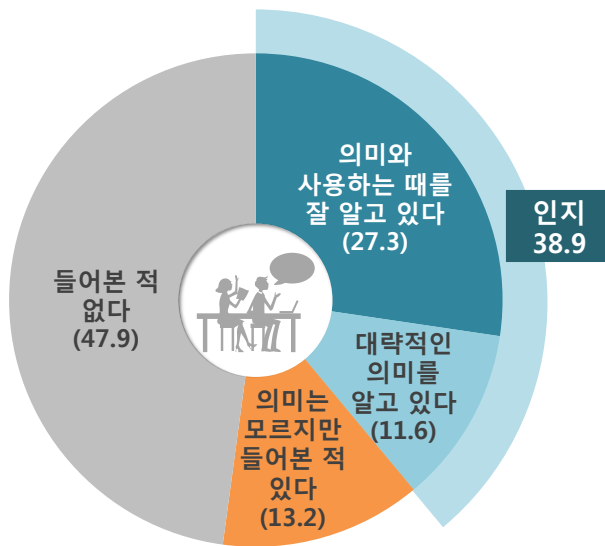
*인지: 의미와 사용하는 때를 잘 알고 있다 + 대략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

**불완전인지: 의미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 “열폭”

Q ○○님께서 ‘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청소년 언어 중 ‘열폭’(열등감 폭발의 줄임 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이 38.9%로 조사되었음. 세대별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의 인지도는 71.0%로 나타나 성인(35.4%)에 비해 약 두 배 높은 수준이었음.
- 한편 평소 언어습관에 따른 분석 결과, 은어사용 계층은 68.9%가 ‘열폭’을 인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은어비사용 계층의 경우 28.4%만이 해당 표현을 인지하고 있음.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 “열폭”

Q ○○님께서 ‘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연령별 분석 결과, 13-19세(71.0%), 20대(85.1%), 30대(62.0%)의 경우 과반이 ‘열폭’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40대 이상(40대: 28.5%, 50대: 12.7%, 60세이상: 4.1%) 연령대의 인지도는 30% 미만으로 낮았음.
- 한편 평소 언어습관에 따라서는 은어사용 계층은 68.9%가 ‘열폭’을 인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은어비사용 계층의 경우 28.4%만이 해당 표현을 인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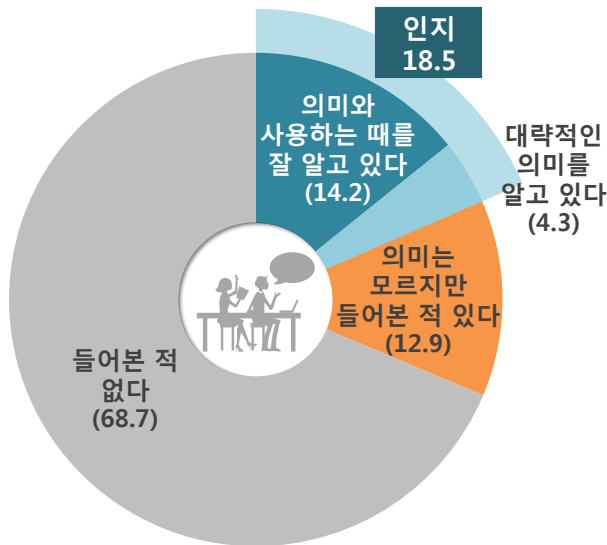
구분		인지 *	불완전인지	비인지
전체		38.9	13.2	47.9
성	남자	39.4	12.1	48.5
	여자	38.5	14.3	47.2
연령	13-19세	71.0	9.3	19.7
	20대	85.1	9.7	5.2
	30대	62.0	12.6	25.4
	40대	28.5	14.4	57.1
	50대	12.7	19.3	68.0
	60세 이상	4.1	11.6	84.4
직업	농/임/어업	12.7	6.3	81.0
	자영업	20.1	16.2	63.7
	블루칼라	30.8	15.1	54.1
	화이트칼라	48.3	13.2	38.4
	가정주부	15.8	15.9	68.3
	학생	77.4	7.7	14.9
	무직/기타	20.3	12.2	67.5
세대별	10대 청소년	71.0	9.3	19.7
	성인	35.4	13.6	51.0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68.9	7.4	23.7
	은어 비사용	28.4	15.2	56.4

*인지: 의미와 사용하는 때를 잘 알고 있다 + 대략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 “낫닝겐”

Q ○○님께서 ‘낫닝겐’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청소년 언어 중 ‘낫닝겐’(Not+닌겐(인간의 일본어)의 합성어로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다는 것을 의미)의 인지도는 18.5%로 나타났으며, 10대 청소년의 경우 61.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데에 반해 성인은 13.7%만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은어사용 계층의 인지도가 39.9%로 나타나, 은어비사용 계층 인지도(10.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음.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 “낫닝겐”

Q ○○님께서 ‘낫닝겐’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세대별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의 경우 61.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데에 반해 **성인은 13.7%만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평소 언어습관별로 살펴보면, 은어사용 계층의 인지도가 39.9%로 나타나, 은어비사용 계층 인지도(10.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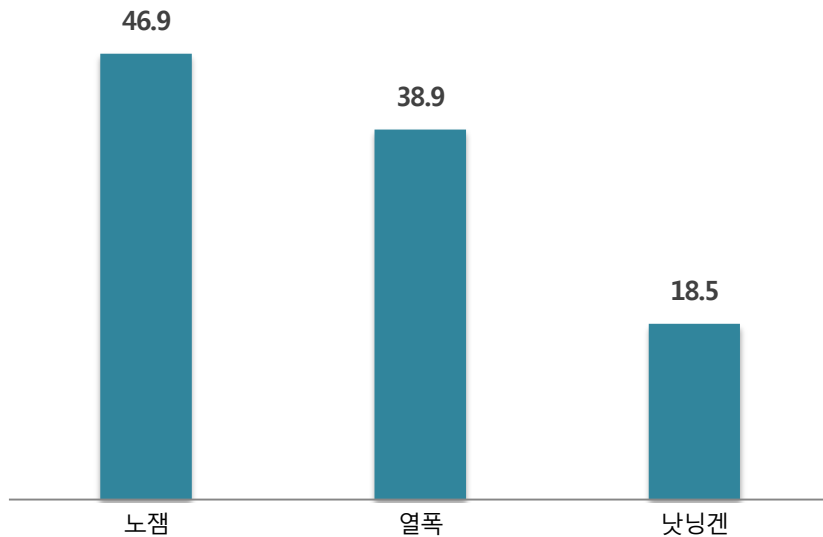
구분		인지 *	불완전인지	비인지
전체		18.5	12.9	68.7
성	남자	17.2	12.3	70.5
	여자	19.8	13.4	66.8
연령	13-19세	61.6	21.1	17.2
	20대	52.7	18.2	29.1
	30대	20.6	13.5	65.9
	40대	2.5	12.8	84.8
	50대	0.6	9.1	90.3
	60세 이상	2.3	7.9	89.8
직업	농/임/어업	6.3	0.0	93.7
	자영업	3.9	8.4	87.6
	블루칼라	14.6	8.1	77.3
	화이트칼라	17.4	13.4	69.3
	가정주부	2.0	12.8	85.2
	학생	59.8	20.9	19.3
	무직/기타	13.0	10.8	76.2
세대별	10대 청소년	61.6	21.1	17.2
	성인	13.7	11.9	74.4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39.9	14.3	45.8
	은어 비사용	10.8	12.3	76.9

*인지: 의미와 사용하는 때를 잘 알고 있다 + 대략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표현별 인지도

Q ○○님께서 '노잼', '열폭', '낫닝겐'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앞서 살펴본 청소년이 사용하는 표현 3가지의 인지도를 비교해본 결과, '노잼'이 46.9%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열폭'(38.9%), '낫닝겐'(18.5%) 등의 순이었음.
- 한편 3가지 표현 모두에 대한 10대 청소년의 인지도는 성인 인지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은어를 사용하는 계층의 인지도가 은어비사용 계층 인지도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음.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표현별 인지도

Q ○○님께서 '노잌', '열폭', '낫닝겐'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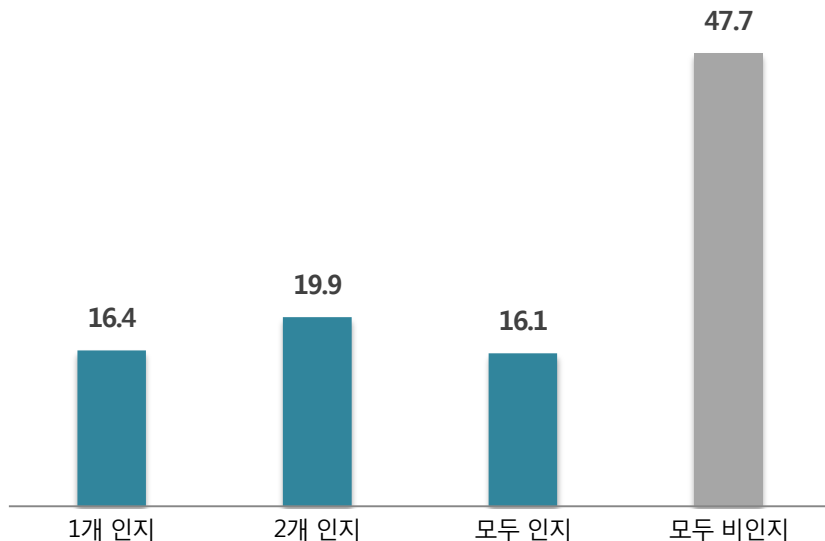
- 세대별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의 3가지 표현에 대한 인지도(각각 92.3%, 71.0%, 61.6%)는 성인(각각 41.9%, 35.4%,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평소 은어사용계층의 인지도(각각 77.9%, 68.9%, 39.9%) 또한 은어비사용 계층의 인지도(각각 36.0%, 28.4%, 10.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음.

구분		노잌	열폭	낫닝겐
전체		46.9	38.9	18.5
성	남자	46.8	39.4	17.2
	여자	47.0	38.5	19.8
연령	13-19세	92.3	71.0	61.6
	20대	94.2	85.1	52.7
	30대	69.5	62.0	20.6
	40대	41.5	28.5	2.5
	50대	16.7	12.7	0.6
	60세 이상	3.7	4.1	2.3
직업	농/임/어업	12.7	12.7	6.3
	자영업	23.1	20.1	3.9
	블루칼라	36.6	30.8	14.6
	화이트칼라	57.2	48.3	17.4
	가정주부	21.2	15.8	2.0
	학생	93.4	77.4	59.8
세대별	무직/기타	26.5	20.3	13.0
	10대 청소년	92.3	71.0	61.6
평소 언어 습관	성인	41.9	35.4	13.7
	은어 사용	77.9	68.9	39.9
은어 비사용		36.0	28.4	10.8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인지수준

Q ○○님께서 '노잼', '열폭', '낫닝겐'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 청소년 언어 3가지 중 몇 가지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해본 결과, 응답 계층별 차이를 보임.
- 세부 분석 결과, 3가지 모두를 알고 있다는 의견은 13-19세(48.8%), 20대(50.7%), 은어 사용(36.1%)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이에 반해, 3가지 모두 모른다는 비인지 의견은 60세이상(91.8%), 은어 비사용(58.0%)계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2.4.3 청소년 언어 인지도-인지수준

Q ○○님께서는 '노잼', '열폭', '낫닝겐'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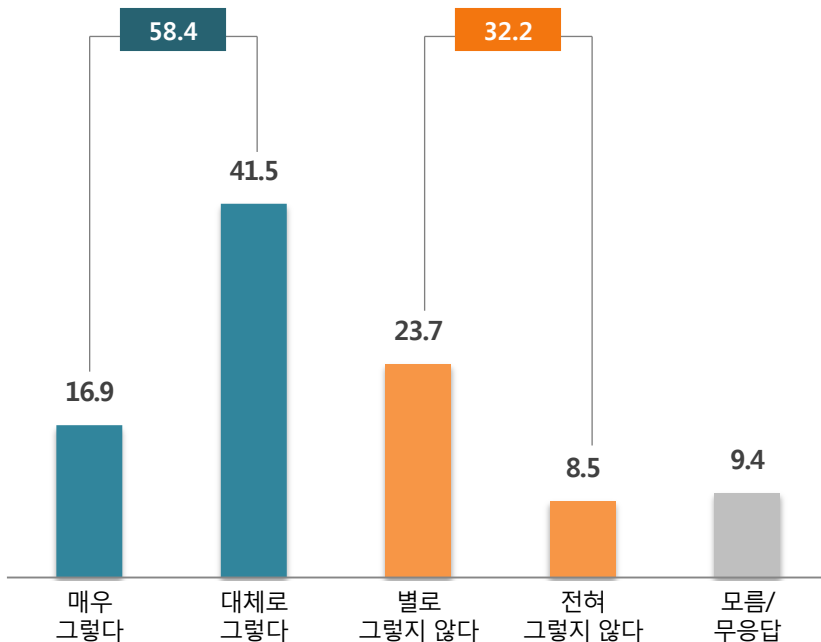
- 계층별 분석 결과, 3가지 모두를 알고 있다는 의견은 13-19세(48.8%), 20대(50.7%), 은어사용 계층(3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이에 반해, 3가지 모두 모른다는 비인지 의견은 40대(52.9%), 50대(77.0%), 60세 이상(91.8%), 은어 비사용(58.0%) 계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구분		1개 인지	2개 인지	모두 인지	비인지
전체		16.4	19.9	16.1	47.7
성	남자	16.0	21.9	14.5	47.6
	여자	16.8	17.8	17.6	47.8
연령	13-19세	19.2	29.6	48.8	2.3
	20대	11.1	34.4	50.7	3.8
	30대	22.5	36.4	19.0	22.2
	40대	23.8	21.4	2.0	52.9
	50대	16.1	6.9	0.0	77.0
	60세 이상	6.9	.9	.5	91.8
직업	농/임/어업	0.0	6.3	6.3	87.3
	자영업	13.3	12.5	2.9	71.2
	블루칼라	14.1	13.2	13.8	58.8
	화이트칼라	20.0	27.0	16.3	36.7
	가정주부	18.0	9.7	.5	71.7
	학생	14.6	31.4	51.0	2.9
	무직/기타	9.9	11.0	9.3	69.8
세대별	10대 청소년	19.2	29.6	48.8	2.3
	성인	16.1	18.8	12.4	52.7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13.3	32.5	36.1	18.1
	은어 비사용	17.6	15.5	8.8	58.0

2.4.4 언어 소통 관련 인식-우리나라 소통 수준

Q ○○님께서 10대 청소년들과 일상 대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n=1,000, %)



- 서로 다른 세대와 대화를 할 때에 소통이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매우: 16.9% + 대체로: 41.5%)는 의견이 58.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8.5% + 별로: 23.7%)는 의견은 32.2%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 분석 결과, 소통이 잘 된다는 의견은 13-19세 청소년(92.3%)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 한편,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은 50대(42.3%), 60세이상 고연령층(5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2.4.4 언어 소통 관련 인식-우리나라 소통 수준

Q ○○님께서 10대 청소년들과 일상 대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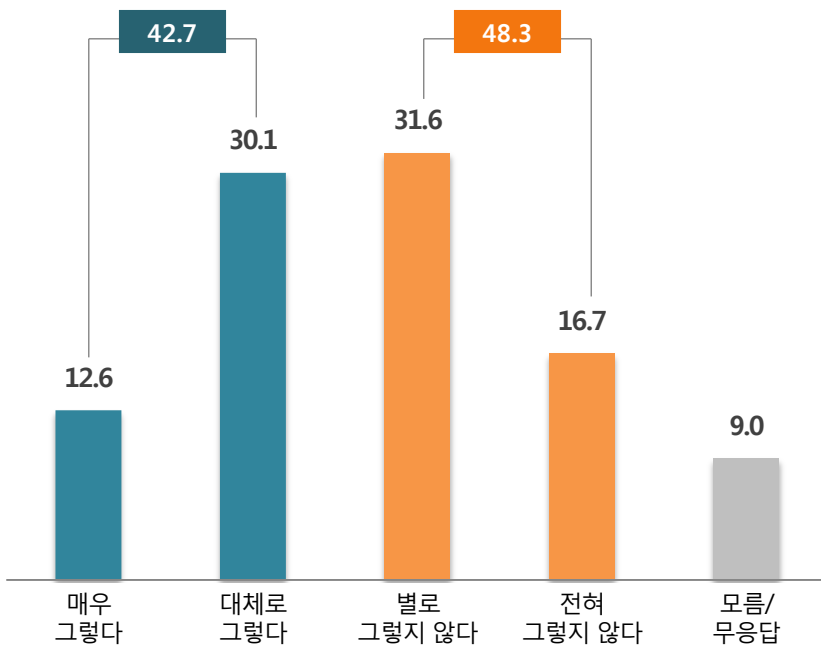
- 모든 계층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한편 연령별 분석 결과, 소통이 잘 된다는 의견은 13-19세 청소년(92.3%)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66.1%)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에 반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은 50대(42.3%), 60세이상 등 고연령층(5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58.4	32.2
성	남자	57.5	33.1
	여자	59.3	31.3
연령	13-19세	92.3	7.7
	20대	78.6	15.8
	30대	55.3	31.4
	40대	66.1	29.5
	50대	46.8	42.3
	60세 이상	32.6	50.3
직업	농/임/어업	23.0	65.0
	자영업	54.6	32.4
	블루칼라	52.7	38.5
	화이트칼라	63.0	28.1
	가정주부	40.7	44.7
	학생	91.5	7.2
	무직/기타	37.3	53.0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74.6	20.1	
은어 비사용	52.6	36.5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65.9	30.8
	청소년 비동거 성인	50.1	36.6
	청소년	92.3	7.7

2.4.4 언어 소통 관련 인식-언어 소통 시 불편 경험

Q ○○님께서 10대 청소년들과 일상 대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n=1,000, %)



- 다른 세대와 대화 시 그들만의 은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12.6% + 대체로: 30.1%)는 의견이 42.7%, '그렇지 않다'(전혀: 16.7% + 별로: 31.6%)는 의견이 48.3%로 나타나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한편 10대 청소년의 경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견이 87.7%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성인의 경우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46.2%)과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44.0%)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2.4.4 언어 소통 관련 인식-언어 소통 시 불편 경험

Q ○○님께서 10대 청소년들과 일상 대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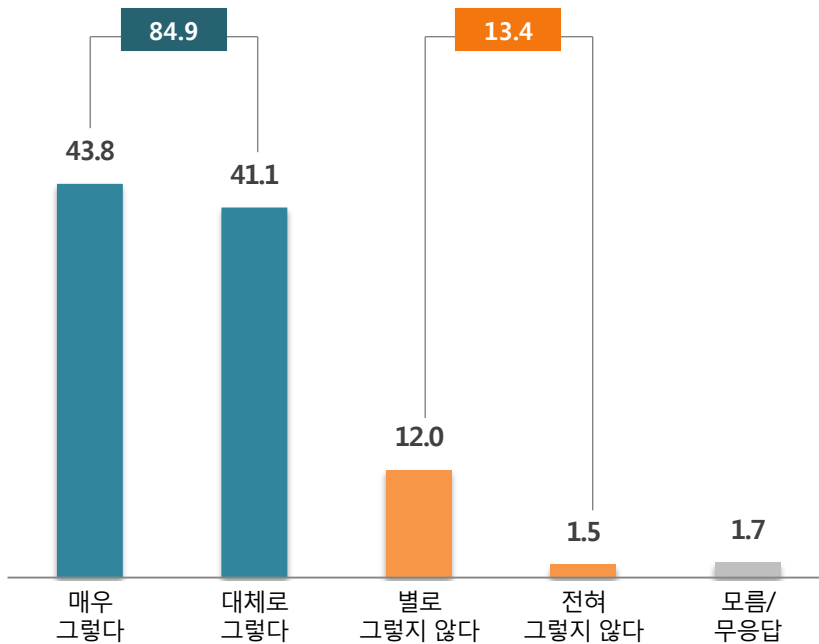
- 세대별 분석 결과, 10대(87.7%), 20대(56.7%) 및 10대 청소년 부모세대인 40대(56.6%)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52.3%), 50대(51.3%), 60세이상(47.1%)에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청소년 동거 성인은 '그렇지 않다'(54.9%)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청소년 비동거 성인은 '그렇다'(48.2%)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성인의 경우 청소년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임.**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42.7	48.3
성	남자	42.2	48.9
	여자	43.2	47.8
연령	13-19세	10.6	87.7
	20대	40.7	56.7
	30대	52.3	41.5
	40대	39.6	56.6
	50대	51.3	38.8
	60세 이상	47.1	29.3
직업	농/임/어업	51.7	19.0
	자영업	46.3	41.3
	블루칼라	49.7	43.7
	화이트칼라	46.2	48.4
	가정주부	48.0	36.4
	학생	20.4	78.4
	무직/기타	40.5	41.1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39.0	57.5
	은어 비사용	44.2	45.1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41.6	54.9
	청소년 비동거 성인	48.2	39.5
	청소년	10.6	87.7
다른 세대 소통여부	소통 잘됨	36.5	60.3
	소통 안됨	56.0	35.0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습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Q ○○님께서서는 청소년들의 평소 언어 습관이 청소년들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 청소년들의 평소 언어습관이 청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43.8% + 대체로: 41.1%)는 의견이 84.9%로 높은 수준이었음.
-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전혀: 1.5% + 별로: 12.0%)는 의견은 13.4%에 불과하였음.
- 한편, 10대 청소년(83.1%)과 성인(85.1%) 모두 청소년의 언어습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Q ○○님께서서는 청소년들의 평소 언어 습관이 청소년들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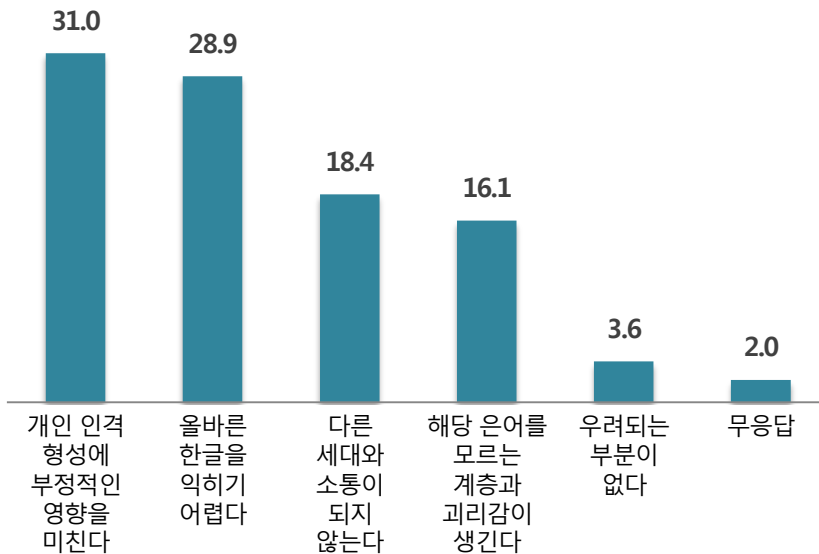
- 대부분 계층에서 언어습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견이 80% 내외로 높았으며, 특히 10대 청소년(83.1%)과 성인(85.1%)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한편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평소 은어 사용 계층(1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84.9	13.4
성	남자	84.1	14.0
	여자	85.6	12.9
연령	13-19세	83.1	17.0
	20대	86.1	12.6
	30대	86.5	12.4
	40대	86.3	12.7
	50대	85.9	13.0
	60세 이상	81.2	14.3
직업	농/임/어업	66.0	22.4
	자영업	80.9	16.3
	블루칼라	89.0	10.1
	화이트칼라	87.0	11.9
	가정주부	88.2	10.3
	학생	82.3	17.7
	무직/기타	76.7	17.2
세대별	10대 청소년	83.1	17.0
	성인	85.1	13.0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81.0	18.2
	은어 비사용	86.5	11.4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사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

Q ○○님께서 청소년들이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n=1,000, %)



-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등 은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0%)는 의견과 '올바른 한글을 익히기 어렵다'(28.9%)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다른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18.4%), '해당 은어를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이 생긴다'(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사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

Q ○○님께서 청소년들이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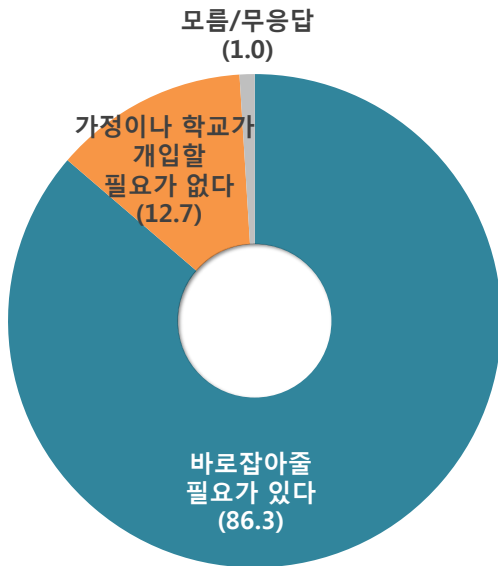
- 계층별 분석 결과,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꼽은 의견은 30대, 40대(각각 35.4%), 화이트칼라(35.5%), 청소년과 동거하는 성인(35.7%)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임.
- 한편 '올바른 한글 학습'을 우려하는 의견은 50대(36.3%), 자영업, 가정주부(각각 3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분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올바른 한글을 익히기 어렵다	다른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전체		31.0	28.9	18.4
성	남자	30.7	25.9	20.2
	여자	31.2	32.0	16.6
연령	13-19세	30.4	26.1	19.6
	20대	32.1	29.6	16.3
	30대	35.4	28.7	15.8
	40대	35.4	22.4	20.8
	50대	28.7	36.3	17.6
	60세 이상	24.4	29.7	19.9
직업	농/임/어업	36.3	30.6	33.1
	자영업	31.0	32.5	14.9
	블루칼라	26.5	30.0	17.0
	화이트칼라	35.5	27.3	18.9
	가정주부	27.4	32.5	18.0
	학생	34.3	24.1	17.9
	무직/기타	17.8	29.0	22.1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28.0	27.7	21.0
	은어 비사용	32.2	29.1	17.5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35.7	25.8	19.0
	청소년 비동거 성인	29.1	30.6	18.0
	청소년	30.4	26.1	19.6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습관 교정 필요성

Q ○○님께서서는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 청소년들의 언어사용에 대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가정 및 학교의 교정(矯正)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 언어 습관은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6.3%로 공감도가 높았음.
- 이에 반해 '10대만의 개성과 문화이므로 가정이나 학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2.7%로 나타남.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습관 교정 필요성

Q ○○님께서서는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 청소년들의 언어사용에 대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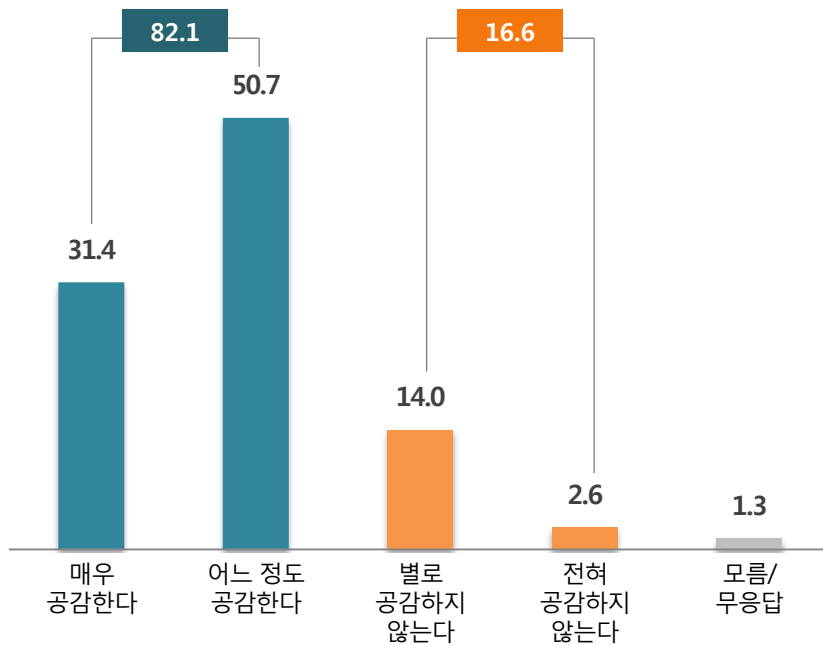
- 청소년 언어습관에 대해 '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은어 비사용 계층(90.4%), 가정주부(93.0%), 언어습관-행동에 영향 있음(90.3%) 계층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임.
- 이에 반해 '개입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13-19세 청소년(26.1%), 자영업(18.8%), 학생(21.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분		바로잡아줄 필요 있다	개입할 필요 없다
전체		86.3	12.7
성	남자	84.2	14.7
	여자	88.4	10.7
연령	13-19세	67.7	26.1
	20대	87.6	12.4
	30대	89.5	10.0
	40대	86.2	13.3
	50대	87.9	11.7
	60세 이상	90.5	9.1
직업	농/임/어업	94.3	5.7
	자영업	80.3	18.8
	블루칼라	84.6	15.4
	화이트칼라	89.1	10.4
	가정주부	93.0	6.5
	학생	74.4	21.9
	무직/기타	87.9	11.0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75.0	22.9
	은어 비사용	90.4	9.0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85.6	14.1
	청소년 비동거 성인	89.5	10.1
	청소년	67.7	26.1
언어습관 행동영향	영향 있음	90.3	9.2
	영향 없음	59.9	35.8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사용과 세대 갈등

Q 청소년의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사용이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님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n=1,000, %)



- 청소년의 은어가 다른 세대와의 갈등 유발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매우: 31.4%+대체로: 50.7%)는 의견이 82.1%,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2.6% + 별로: 14.0%)는 의견이 16.6%로 조사되었음.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사용과 세대 갈등

Q 청소년의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사용이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님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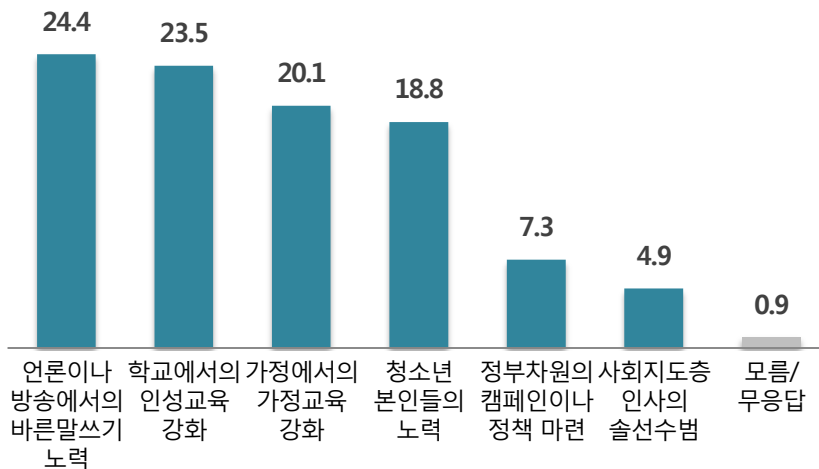
- 모든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80%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남성(79.4%)보다는 여성(84.7%)에서, 청소년 동거 성인(78.9%)보다는 청소년 비동거 성인(83.4%)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임
- 한편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잘 된다는 계층(81.4%)에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이에 반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0대(22.2%), 평소 은어사용 계층(20.4%), 자영업(2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구분		공감	비공감
전체		82.1	16.6
성	남자	79.4	19.6
	여자	84.7	13.6
연령	13-19세	81.7	17.7
	20대	85.3	14.7
	30대	85.2	14.8
	40대	77.8	22.2
	50대	82.4	17.6
	60세 이상	81.2	12.8
직업	농/임/어업	76.4	23.6
	자영업	77.2	21.0
	블루칼라	80.9	19.1
	화이트칼라	83.4	16.6
	가정주부	83.8	13.2
	학생	83.5	16.5
	무직/기타	78.8	14.2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79.6	20.4
	은어 비사용	83.0	15.4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78.9	20.3
	청소년 비동거 성인	83.4	15.0
	청소년	81.7	17.7
다른 세대 소통여부	소통 잘됨	81.4	18.1
	소통 안됨	83.9	14.3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사용 개선을 위한 노력

Q ○○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다음 중 어떠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n=1,000,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바른말 쓰기 노력'(24.4%)과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 강화'(23.5%)를 꼽은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 미디어와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음.
-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강화'(20.1%), '청소년 본인들의 노력'(18.8%) 등의 순임.

2.4.5 청소년 언어 습관에 대한 인식-청소년 언어사용 개선을 위한 노력

Q ○○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다음 중 어떠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n=1,000, %)

- 연령별 분석 결과, '언론 및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30대(29.8%), 40대(30.2%)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청소년(15.5%)에 비해 성인(25.4%)에서 더욱 높았음.
- 한편 '청소년 본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학생(47.6%), 10대 청소년(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구분	언론/방송 바른말 쓰기 노력	학교 인성 교육 강화	가정교육 강화	청소년 본인 노력	
전체	24.4	23.5	20.1	18.8	
성	남자	23.1	22.9	23.0	18.9
	여자	25.7	24.1	17.3	18.7
연령	13-19세	15.5	14.1	10.4	45.5
	20대	22.4	15.8	16.4	37.0
	30대	29.8	15.1	20.7	23.2
	40대	30.2	25.6	19.2	12.4
	50대	24.5	30.0	21.0	8.8
	60세 이상	20.1	32.8	27.3	4.0
직업	농/임/어업	24.1	46.0	24.7	0.0
	자영업	23.0	29.2	22.7	7.8
	블루칼라	23.5	28.0	11.9	18.5
	화이트칼라	29.9	20.5	23.4	16.5
	가정주부	23.8	28.7	20.9	10.8
	학생	14.6	12.4	14.0	47.6
	무직/기타	22.6	26.0	21.6	14.1
세대별	10대 청소년	15.5	14.1	10.4	45.5
	성인	25.4	24.5	21.2	15.8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22.9	16.9	18.6	29.4
	은어 비사용	25.0	25.7	20.7	15.1

3. 종합 분석 결과

(여론조사 및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3. 종합 분석 결과 - 인격 형성

[여론 조사]

-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점 (여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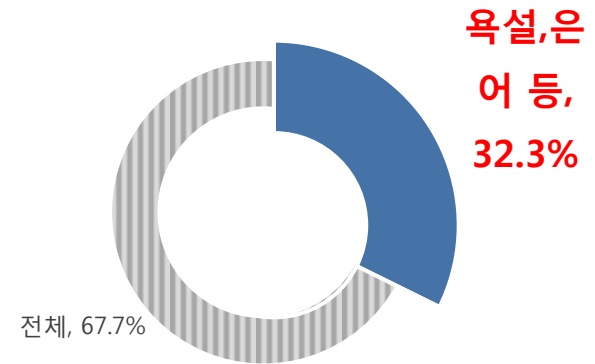
청소년 은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한글을 익히기 어렵다	다른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은어를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이 생긴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	무응답
	31.0	28.9	18.4	16.1	3.6	2.0

- 여론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언어 사용 관련 가장 우려 되는 사항을 확인 해본 결과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미친다** 라는 의견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종합 분석 결과 - 인격 형성

[빅데이터 분석]

- 은어나 욕설, 상처 등의 글 점유율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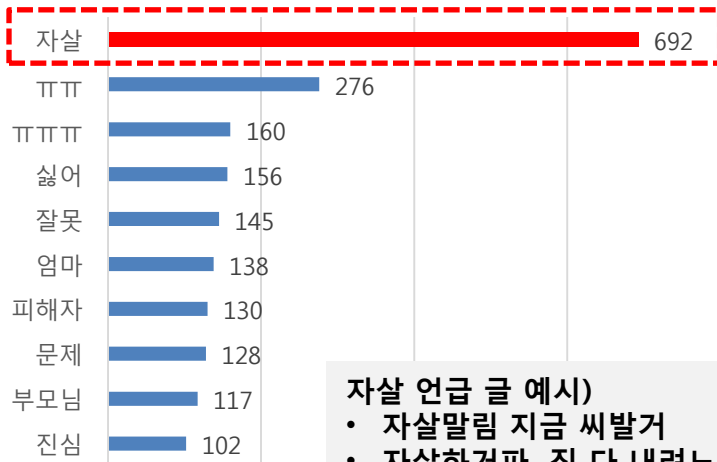


- 이는 실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글들을 분석 해 본 결과 **욕설이나 은어, 상처 주는 글들이 전체의 3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 분석 결과 - 인격 형성

- 또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중 하나로 청소년들이 상처에 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쉽게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일반적으로 슬프거나 힘들 경우 자주 사용 하는 이모티콘 “ㅍㅍ” 보다 높게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단어를 쉽게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살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유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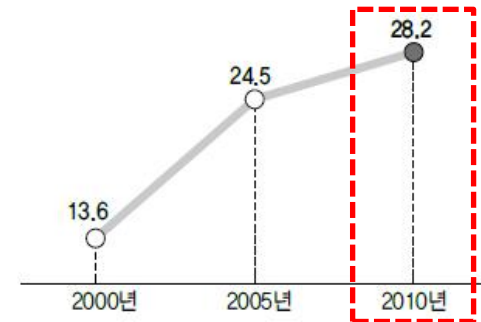
• 상처 관련 글의 주요 언급 키워드



자살 언급 글 예시)

- 자살말림 지금 씨발거
- 자살하거파 집 다 내려노코
- 자살생각중 진지함
- 자살하러간다 씨발 죽고싶다
- 자살하고싶다 내년엔 죽어있길

- 15~19살 사망자 가운데 자살 비율
(출처 : 국가통계포털 / 단위 %)



3. 종합 분석 결과 -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

[여론 조사]

- 언어 사용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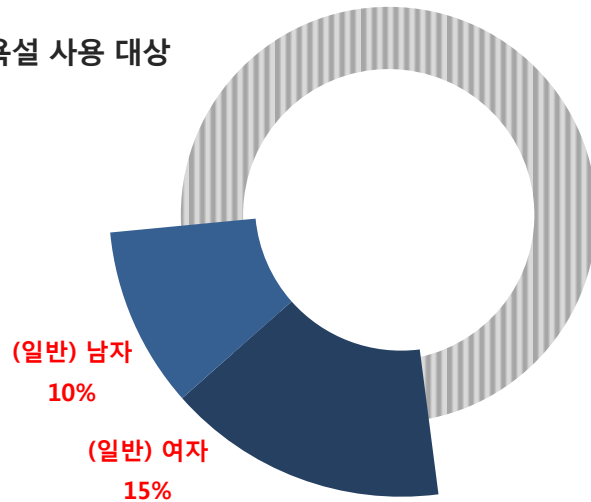
구분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	사회 지도층의 막말 사용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저속한 표현
전체		52.5	15.0	11.8
성	남자	50.3	17.7	11.5
	여자	54.7	12.3	12.2
연령	13-19세	64.8	7.1	6.1
	20대	63.1	5.2	7.7
	30대	57.3	12.5	12.4
	40대	54.1	11.6	12.1
	50대	55.1	14.5	15.6
	60세 이상	31.0	31.6	13.6
직업	농/임/어업	29.7	28.9	23.0
	자영업	47.5	17.9	11.4
	블루칼라	52.0	19.5	9.9
	화이트칼라	56.2	10.3	12.9
	가정주부	49.2	18.9	14.0
	학생	63.4	6.9	8.7
	무직/기타	33.9	30.6	8.9
평소 언어 습관	은어 사용	51.9	11.2	9.0
	은어 비사용	52.8	16.4	12.8
청소년 동거여부	청소년 동거 성인	53.3	11.7	14.0
	청소년 비동거 성인	50.3	17.6	11.8
	청소년	64.8	7.1	6.1

- 여론조사에서 언어 사용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분야에서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저속한 표현” 항목이 11.8%로 나타났다. 특히 점으로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저속한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 분석 결과 -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

[빅데이터 분석]

-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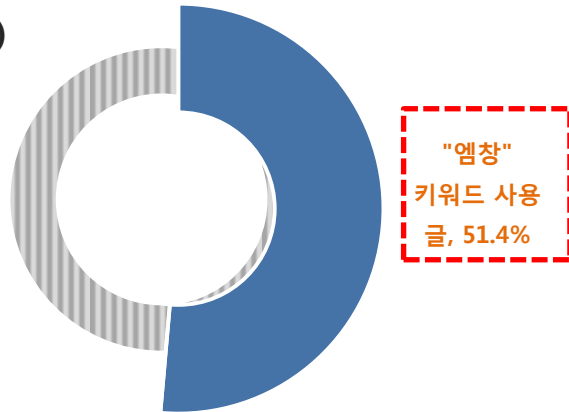


- 이는 그에 비추어 온라인 소셜분석에서는 청소년이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대상이 **불특정 남녀 25%가량을 차지** 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 매체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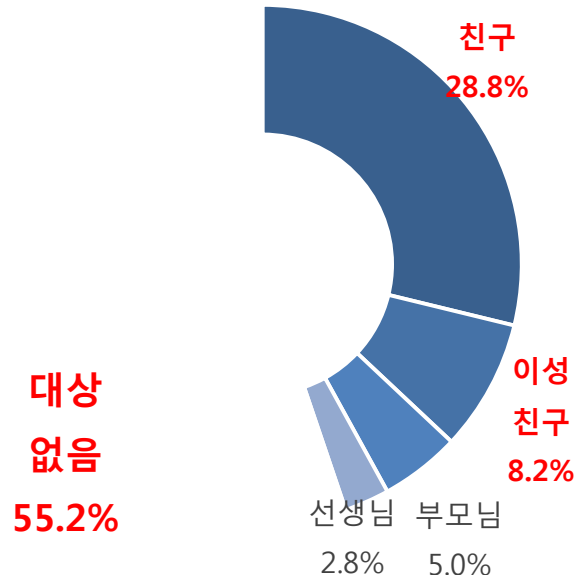
3. 종합 분석 결과 - 한글 익히기 / 세대 소통

[빅데이터 분석]

- 폼하, 비하 관련 글 중 “엠창” 키워드 사용 빈도 (WEB 사이트 분석)



- 은어사용 대상 빈도 (WEB 사이트 분석)



• 청소년들의 글을 분석 해 본 결과 상대방을 비하 하거나 폼하 하는 글 중 51.4%에서 “엠창”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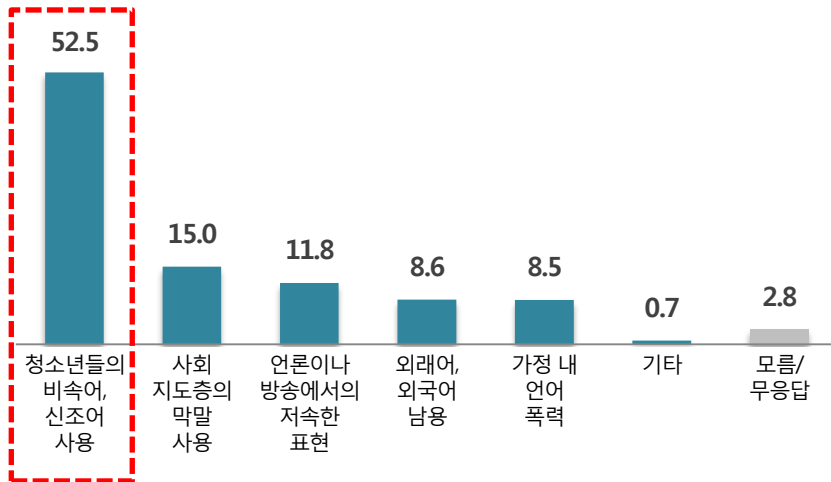
•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중 10%가 은어를 자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특정 대상을 지정 하지 않고 은어를 사용 하는 내용이 **55.2%**인 것으로 보아 은어사용이 또래나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일상적으로 은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종합 분석 결과 - 한글 익히기 / 세대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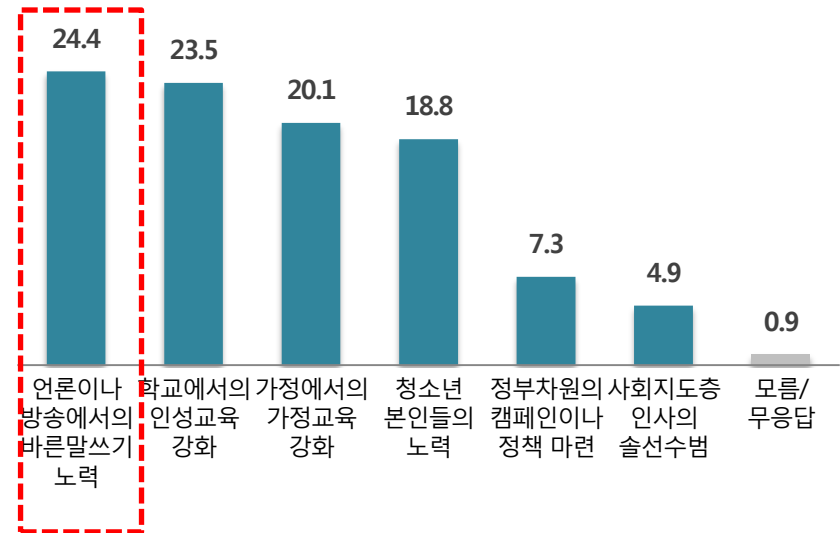
[여론 조사]

- 앞의 극단적 단어사용과 은어사용 실태에 비추어 보면, 여론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52.5%)이 문제다 라는 국민 인식과 연결됨
- 그 해결책으로는 주로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노력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바른말쓰기 노력” 이 여론 조사 결과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평소 우리나라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 (여론 조사)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노력(여론 조사)





4. 전문가 의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와 스스로 느끼게 하는 방식의 학습 필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언어 소통이 빠른 반응, 글의 축약 및 축소(초성사용), 은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청소년 언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은어와 욕설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있다.** 은어 사용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친구와 애인 그리고 외모와 문화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또래집단(리퍼런스그룹) 내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세대와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송언어가 청소년들의 언어사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올바른 언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보호(올바른 언어사용)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드코어 힙합가수들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노랫말은 음률과 율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독성도 강하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가수들의 노랫말이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정적인 거나 욕설 또는 은어나 외래어(일본어 포함) 등이 섞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은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올바른 언어 인성교육으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기획과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언어를 순화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하는 방식의 학습이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 방식을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채택해서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를 선택하고, IT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응을 바로보고, 바로 듣고 토론하는 것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어, 외래어, 비난 또는 비하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해야 언어교육 순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어(또래의 언어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가 또래집단(리퍼런스그룹) 내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는 왜 청소년들이 은어를 사용하는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나쁜 의미의 은어는 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좋은 의미를 은어는 장려를 통하여 새로운 말을 창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찬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

경력

2014.10~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

2014.04~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상임이사

2014.03 국민체육진흥공단
~2014.05 스포츠레저사업본부 본부장

2013.12~ 한국스포츠문화재단 자문위원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 학생에게 “고마워! 사랑해!”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무심코 뱉은 말, 악의를 가지고 던진 말은 신체적 폭력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폭력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어폭력을 당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상처로 영혼에 멍이 들게 됩니다.

아이들은 욕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난이라며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일까요?

욕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욕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대화를 보면 50%가 욕설과 은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주로 어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와 다툼 때 대부분 “뭐야? 하지만”라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투는 친구에게 “재미없으니깐 나한테 그러지 마. 그만해!”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감정이 다쳤을 때 상대방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직장내 언어폭력, SNS 상의 언어폭력, 사이버언어 폭력이 난무한 현재의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대화는 벽을 보고 자신의 귀는 막아버린 채 자신의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소통을 위한 대화를 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혹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에 상대방을 무시, 조롱, 비난, 협박하는 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비폭력대화는 폭력이 없는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협조를 구하는 대화입니다.

비폭력대화는 나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타인의 말을 존중으로 들어주고, 협조적인 방식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협력적인 태도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청소년들의 욕설과 은어, 상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뿐 그것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습관은 짧은 기간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언어도 습관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처럼 작은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투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제공되어야 인성교육은 어른들을 위한 정책에 밀려, 이익 추구에 밀려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입시경쟁과 스트레스로 더욱 심각해진 청소년 언어폭력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집단은 청소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사와 부모집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 소통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단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언어습관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은 너무나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어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면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은어와 욕설을 줄여가고 그에 따른 상처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솔직한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언어사용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하고, 좋지 않은 상황을 목격했을 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돼!”라는 말보다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질문하면서 폭력의 시작이 어디인지 찾으면서 학생 스스로 이유를 찾아내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의 잔소리. 그러나 “매 맞는 순간만 아프면 되지만 말은 계속해서 상처로 남는다”며 차라리 매 맞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남학생의 표정에서 가정에서 사랑의 가장한 언어폭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의 언어학대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체적 폭력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방치된 아동은 자존감이 낮아져 언어폭력에 취약해집니다.

부모와 같이 밥을 먹고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랑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가정 내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폭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언어폭력의 희생자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언어문화의 개선은 또래문화부터 시작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언어폭력과 관련된 1회성 캠페인이나 집단교육이 아닌 학급단위의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형태는 주입식으로 진행되는 일방통행 강의형태에서 벗어나 토론 중심의 생각할 수 있는 쌍방통행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캠페인이나 강요로는 아이들의 습관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 되려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자신과 가족,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갑니다.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너무도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언어폭력 현상은 그들을 병들게 한 원인과 책임이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고 경고하는 것인 지도 모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미래의 부모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 학생에게 “고마워! 사랑해!” 하고 이야기해주세요.

한혜원 밝은청소년 (부장)

※ 밝은청소년(<http://www.eduko.org/src/>)이 하는 일

청소년 인성 교육 사업

- 학교 인성 교육
- 청소년 시설, 기관 인성 교육
- 자살 예방 교육
- 인성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 집단 상담 프로그램
- 인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청소년 문화 사업

- 청소년 행복 나눔 콘서트
- 한일 청소년 사진 문화 교류
- 대한민국 청소년 사진 공모전
- TEDxYouth Gwanghwamun
- 가족 축제 / 캠핑
- 청소년 캠프 (너나들이 캠프, 오감 푸리 캠프, 글로벌 리더십 캠프)
- 가정 문화 포럼

세대격차, 패거리문화 구축, 국어 체계의 붕괴 등의 역기능 발생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

▶ 청소년의 언어 습관 관련 대한 문제점 제기

사회적 규율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른들이 모르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며 더욱 견고한 그들만의 세계에서 언어와 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간의 의사소통 양식이 점점 시뮬레이션적 속성을 띠게 된다.

이 경우 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대상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모델을 그럴 듯하게 합성해 가는 자기 창조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세계가 갖는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산출되는 삶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전통적인 언어관의 중심에 있던 의미, 지시대상, 지시 관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상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성세대가 현실세계에서 문자·인쇄적 표현 양식을 통해 의사소통 하던 것에 비해 가상공간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방법은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삶의 방식 내지는 생활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수단인 그들만의 언어의 사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문화적 수단으로서의 청소년 언어의 **순기능은 청소년 상호간의 비밀보장과 빠른 의사소통, 소속감강화, 스트레스 해소** 등이며 **역기능으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세대격차, 패거리문화 구축, 국어체계의 붕괴** 등이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어와 속어를 양산해 내고 있는 작금에 청소년들은 경음화와 고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세계를 향유하고 동지적 결합을 이루어 내는 쾌감에 도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언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과 동시에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그 결과로 다시 청소년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청소년의 언어 습관에 대한 해결 방안

첫째,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On-line상에서도 올바른 예절과 절제가 있는 표현을 통한 청소년들만의 밝고 건전한 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언어문화 노출에 따른 가치관의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의 향상을 통한 건전한 자아의식의 함양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언어의 유음화 유도하고 표준어를 이해한 후 은어와 속어의 사용을 지도해야하며

넷째, 다양한 그들만의 언어문화를 인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그들만의 언어문화가 형성되도록 교사나 학부모, 청소년지도사등 사회지지망의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정화된 언어 사용을 통해 올바른 청소년 언어문화를 조성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저서

청소년활동지도론 (2003.08.30)

지역문화와축제 (2005.12.24)

청소년 수련활동 (2006.02.10)

현대사회와 청소년 (2008.03.20)

청소년복지론 (2008.08.12)

감사합니다
